



아산 송악면 주민들 “사슴 축사 신축 허가 취소하라”

아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 갖고 반대 투쟁 벌여

아산 송악면 역촌·평촌리 주민들이 기업형 축사 반대 주민대책위를 발족, “주거밀집구역 내 사슴 축사 신축 허가를 취소하라”며 아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대 투쟁 시위를 벌였다.

아산 송악면 역촌·평촌리 주민들이 “주거밀집구역 내 사슴 축사 신축 허가를 취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9일, 피켓시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송악면 역촌리는 인근 송남초와 송남중학교가 소재하고, 주택이 가장 밀집된 면소재지다. 그런데 시는 부지 약 4천866㎡에 약 1천270㎡(384평) 규모의 사슴축사 신축을 허가해 줘 주민들과 민원과 분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축사와 민가의 이격거리가 문제”라며 “시는 지난 2017년 아산시 가축분뇨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통해 양과 사슴의 경우 주택밀집지역 1천m에서 200m이하의 이격거리로

대폭 완화했다”며 “현재 환경부 고시를 비롯해 다른 지자체도 사슴축사와의 이격거리가 200m로 짧은 지자체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의 현행 조례는 주민들의 환경권을 고려하지 않은 조례며, 2017년 개정 당시 이격거리 완화를 요구하는 지역 축산인 및 단체의 반발로 재개정에 나서 그때 땀집식 수정에 그쳤다는 지적과 악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대책위는 “사슴의 악취와 소음은 전후방 5km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며, “최소기준이라는 환경부 고시도 400m인데 시가 이격거리를 200m로 완화하며 주민들과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가히 정치적 해석이라고 여길 수 밖에 없다. 시는 빠른 시일안에 조례개정을 통해 축사의 경우 이격거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주민대책위는 “송악면은 친환경농업지구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이며 반딧불이 보존지역이다. 혁신교육특구라고 말해도 될 3개의 혁신학교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축사에 대해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거시적 차원에서 도시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요구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주민대책위는 △송악면 13개 리 중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역촌리와 평촌리에 사슴 축사 신축허가취소 △사슴 축사 신축 허가 전 학교시설 관련 및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해 거리와 조건 고려 △축사 허가 이전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축사 조례개정을 통해 축사 신축허가 시 이격거리 강화로 주민 삶의 질 보장 △무분별한 축사 신축허가 이전에 민가와 구별되는 대안 사업구역 지정 등을 요구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대전시교육청 학교폭력 대책 ‘미봉책’ ... 실효성 의문

최근 대전지역에서 학교폭력이 잇따라 발생해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최근 대전시교육청이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기존의 정책을 답습하는데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최근 학교폭력이 위협수위를 넘어 특단의 대책을 기대했던 대전시민들로서는 이번 대책이 단순히 면피성 내역식 대책으로 근본적인 학교폭력 예방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28일 최근 발생한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 경찰, 교육청, 상담기관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조체계를 마련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기원 대전시 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은 이날 시교육청 기자회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공정한 시간처리, 피해학생 보호와 지원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모든 학생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현장 컨설팅지원단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 대한 장학을 실시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공정한 시간처리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특히 집단폭력, 디지털폭력, 성폭력 등으로 피해를 받은 학생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발표한 대전시 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책 방안에 대해 학부모들은 그동안의 대책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근본적 대책이라기보다는 학교폭력 발생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실효성 없는 면피용 서술에 불과하다는 비난도 나온다.

학생들이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사고 발생 후 처리 방법에 대한 것만 나열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전지역 D중학교에서는 체험학습 일환으로 2학년 학생들이 단체로 폭력성이 포함된 영화를 관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화는 15세 이상 관람이 가능한 등급의 영화로 비록 코믹성이 일부 포함됐다 해도 목숨을 담보로 한 폭력적인 장면이 있는 만큼 여러 가지로 예민한 시기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관람하기에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최근 대전지역에서 학생들간 폭력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확산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영화 관람이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학교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받지 않고 현금을 각출했다 것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일부 학생들에게는 돌려주겠다는 문자를 뒤늦게 휴대폰을 통해 발송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이 학생 폭력을 사전 예방보다 되레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며 “학업 성적 지상주의에 빠져 인성 교육에 소홀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대전에서 잇따른 중학생 집단 폭력 사건과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4일 성명을 통해 “대전에서 잇따라 중학생 집단 학교폭력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생, 학부모는 물론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단순 폭행이 아니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에서 교육 당국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지어 사건과 관련된 한 중학교는 이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물었더니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은 학폭이 터질 때마다 학교·교육청·경찰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강화 등의 요란한 대책만 쏟아낼 뿐 실효성 있는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사건이 벌어진 뒤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잔치만 벌어지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정복기자

허태정 시장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

허태정 대전시장이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2019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상을 수상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허태정 시장은 30일 오후 2시 서울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부문 대상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총 5개 부문(국정부문, 광역부문, 기초부문, 공무원부문, 사회단체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하며, 허태정 시장은 이날 광역부문(자치단체장)에서 김영록 전남지사과 함께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허태정 시장은 민선 7기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 슬로건을 내걸고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대전 경제 발전을 견인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김태성기자



(주)부영 갑질로 '무주리조트' 상인들 길거리로 쫓겨날 신세

평화당 갑질근절대책위 고무열 위원장, 최근 간담회 열어 상인들 입장 경청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위원회(이하 갑대위) 조배숙 위원장은 지난 21일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주)부영이중근회사의 실소유자인 (주)부영이중근회사의 갑질 상인들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고 합의를 통해 조속히 해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10월 29일 (주)부영이중근회사의 상가비상대책위원회는 회사 측으로부터 어떠한 조치가 없어 '임차인의 작은 목소리'라는 간담회에 갑대위 대전 고무열 위원장을 초청해 자신들의 견해를 밝혔다.

고 위원장은 본 사건이 중앙당 갑대위에서 이철민 지 7개월 동안 '상생 테이블'이라는 기치 아래 서로의 입장을 듣고 중재를 하려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안타깝다는 마음을 전하면서 상인들의 고충과 회사 측에 희망 사항이 무엇인지 두 가지의 주제로 경청했다.

임차인의 주장 중에 전자 여신



금융거래법 위반, 친분에 따른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공정거래법 위반, 건축 및 소방법을 위반 등이 있지만, A 상인은 적자 운영인 데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타 점포와 비교해 턱없이 높고 평수 및 매출 대비 평평성에 어긋난다. 또한, 동종업체가 입주하기 전 아무런 협의가 없어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일주일 전에 통보받아 화답했다고 밝혔다.

B 상인은 회사 홍보가 거의 없고 임대업장 관리가 소홀하며 명

령조의 메시지와 '싫으면 떠나라'는 식의 막말을 들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상인들끼리도 입장차가 달라 단합하지 못하고 엇갈린 목소리로 갈등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과거처럼 화합하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소회를 밝혔다.

C 상인은 총체적으로 매출액이 감소해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3개월 미만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어 쫓겨나지 않으려 할 말을 못 하고 숨죽이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

날 토론장에도 못 들어오고 길거리를 배회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 유를 묻은 즉 토론회장에 참석했다가 회사 측에 미움을 살까 두렵다고 말해 그 상황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었다.

이에 개인적인 어려움은 차치해두더라도 목소리를 종합해 보면 (주)부영이중근회사는 전문경영인과 분야별 전문인이 배치, 일부 회사 직원들의 무사안일한 태도, 새로운 아이팀 개발, 전폭적인 홍보전략, 리조트의 전체적인 수리를 희망했다.

이날 고 위원장은 상가 내 소방법 위반과 불법 건축물 현장을 돌아보았으며 마침 회사 측은 상가 전반에 걸쳐 보수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 상인들은 11월부터 매출이 오르고 예약 고객이 있는데 공사를 시작한다는 일방적인 통지를 문자로 받았고 상의가 없었다며 불만을 표했다. 이에 좀 더 세심한 소통과 배려가 있기를 바란다

이정복기자



유성구의회 사도위, 국화전시회 활성화를 위한 비교견학 나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30일 유성국화전시회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을 위해 익산시의회와 익산국화축제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비교견학은 익산에서 열리고 있는 천만송이국화축제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유성국화전시회를 전국 규모의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진행되었다. 먼저 익산시의회를 방문한 의원들은 익산국화축제의 추진현황에 대해 듣고 익산시의회의 의원들과 축제에 대한 궁금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후 전국 최고 규모의 국화전시회를 비롯한 축제 현장을 견학했다.

충남도의회 한옥동 의원, 도내 청소년 수련시설 방문

홍성·보령 등 청소년수련시설 찾아애로사항 파악

충남도의회 한옥동 의원(전안5)이 '청소년들이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신발관을 조여 댔다. 한 의원은 다음달 제316회 정례회 의정활동을 앞둔 30일 도내 청소년 수련시설을 잇따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과 청소년 이용률, 예산 지원 현황, 대외협력 등 종합적인 시설 운영 현황 파악과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한 의원은 이날 홍성군 청소년수련관과 보령에 위치한 청소년문화의집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직원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28일에는 올해 4월 문을 연 천안시 성환읍 소재 청소년 카페를 찾아 운영상 어려움이 없는지 살폈다.

한 의원은 "청소년의 행복이 우리의 미래"라며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문화 역량 강화와 성장을 위해 청소년관련 수련시설의 건설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환기자

행정사무감사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시의회 남진근 운영위원장, 지방의회의 집행부 감사·견제 역할 강조



대전광역시의회는 30일 남진근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구1) 주관으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다음달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의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을 성찰하

고, 개선 방향을 찾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최호택 교수(배재대학교 행정학과)가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주제발표를 했고, 권중순 의원(대전광역시의회), 김상기 팀장(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아름다운참여팀), 선치영 기자(아시아뉴스통신 대전충남본부 총괄국장), 이기동

위원장(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회)과 시의원 및 구의원 등이 참여하여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장이 됐다.

남진근 운영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기능 중 집행기관을 감사·견제하는 의정활동의 핵심이며, 이번 토론회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장으로서 "지방의회가 공정하고 효과적인 감사와 다른 시·도와의 수시 교류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한층 더 성숙한 지방분권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정환기자

신창현 의원, 공기의 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세먼지의 제염을 앞두고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는 맑은 공기 문화운동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왕·과천은 30일 이와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3월 미세먼지 오염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통과되었고, 지난 8월에는 신창현의원이 미세먼지 오염에 심각한 겨울철에 민간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1월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석유정제업, 시멘트, 제철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체들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치를 낮췄으나, 지난 8월까지 실제 감축량은 예상 감축량 대비 17% 수준에 그쳐 허용기준치를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민간 차량 2부제나 다량배출업소의 배출량 감축과 같은 정부 규제만으로는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세먼지 배출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규제저항에 따른 정책 차질과 경유차량을 생계수단으로 사용하는 국민들의 반발로 인한 사회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미세먼지 감축 정책들을 범국민적인 의제로 추진하기 위해 맑은 공기의 날 및 공기 주간 등의 다양한 행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시민단체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환경문제는 정부, 기업, 시민 3자가 협력해야 더 빨리, 더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성규기자

아산 특산동·좌부동 공영주차장 건립 '청신호'

이명수 의원



공영주차장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명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특산동 부영아파트 앞 토지(특산동 394번지 일원)를 매입하여 1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

차장 건립을 위한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산시와 협력하여 도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배방 좌부동 초원아파트 입주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9대 주차 규모의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사업비 10억원 확보를 위해 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산시의 공영주차장 추진계획에 따르면, 특산동과 좌부동 공영주차장 건립은 2020년 3월에 토지매입을 완료한 후 2020년 12월

에 공사가 완료될 전망이다.

이명수 의원은 "특산동과 좌부동 공영주차장의 경우 도비와 시비가 매칭 투자되는 사업으로 도비 확보 여부가 공영주차장 건립의 관건이기 때문에 아산시와 협력하여 충청남도 관계자에게 공영주차장 건립의 타당성을 집중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산동과 좌부동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도비 확보 여부는 충청남도의회 예산심의가 끝나는 연말에 확정될 전망이다.

아산=리량주기자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수상

빅데이터 기반 복지·보건정책 접목 등 지방자치 발전 기여 공로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전안7)이 30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9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시상식에서 공역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사단법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후원했다.

김 의원은 '빅데이터 기반 복지·보건 정책 연구모임' 활동을 통해 데이터를 토대로 사회적 약

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적응업 기반 구축과 충남형 노인돌봄 체계를 제안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지역복지정책 세미나를 통한 공동체 마을 만들기 사업, 충남 트라우마 센터 건립 등 도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한 공로로 인정받았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김 의원을 비롯해 김홍장 당진시장·맹정호 서산시장이(초부민) 등 각계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인사들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행복청, 창의진로교육원 건립사업 설계완료

청소년 진로탐색·진로체험·진로교육 일괄(원스톱)서비스 제공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보람동(3-2생활권)에 학령기 학생의 진로상담·진로체험 및 진로교육을 일괄(원스톱)로 제공하는 창의진로교육원 건축설계가 최종 확정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건립하는 창의진로교육원의 실시설계 완료 보고회를 지난 10월 22일(화) 개최하고, 건축설계를 완료했

다고 밝혔다. 창의진로교육원은 건축비 300억 원과 부지비 59억 원을 합쳐 총사업비 359억 원을 투입하여 세종시교육청 북쪽 1번(청3-2) 부지에 대지면적 7,692㎡, 건축연면적은 9,799㎡,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내부에는 진로상담실, 진로체험실, 진로도서관, 강의실, 전 시설, 동아리실, 북카페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며, 진로탐색, 체험 및 교육을 연계한 일괄(원스톱) 진로교육서비스를 제공

하게 된다. 본 설계는 하나의 건물을 3개 동으로 분절하여 2층, 3층, 4층으로 각각 층이 다른 외형을 만들고 이에 따라 조성된 다양한 내·외부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였으며,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기상을 나타내는 계단형 지붕과 전체 외벽에 유리창을 사용하여 첨단 미래사회에 호응하는 현대적 건물의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행복청은 이번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연말까지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 공사를 발주하고 2020년 3월 착공하여 2022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행복청 고성진 공공시설건축과장은 "창의진로교육원이 완공되면 학생들이 재능과 꿈을 마음껏 키우고 다가올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진로탐색의 기회가 다양하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태성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관세청 '마약사이트' 강력 차단한다더니...절반가량 열려

"마약사이트 적발·차단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즉시 시스템 개선해야 할 것"

최근 국제우편 등을 통한 마약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차단패아 할 마약 판매 사이트의 절반가량이 여전히 접속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천원비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관세청에서 적발한 인터넷 마약 판매 사이트는 117건이었는데 현재 이 중 절반가량인 54건이 여전히 차단되지 않은 상태였다.

관세청은 마약관련 사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거나 마약류 판매 사실을 적발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주소(URL)를 보내 국내 접속 차단 요청을 하고 있으며, 적발된 117건에 대해서도 "방통위에 차단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실에서 해당 사이트들을 분석한 결과 54건의 사이트가 여전히 접속이 가능한 상태 로 그 중에는 몇 년에 걸쳐 차단요청을 한 사이트도 포함되어 있었다.

심지어 한 마약 판매 사이트는 2016년 6월과 7월 대마종자를 국제우편으로 들여온 구매통로로 확인돼 2016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차단대상 사이트로 분류됐지만 여전히 접속 가능한 상태였다.

확인결과, 관세청이 차단 요청 목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방통위가 사용하지 않는 문서유형시스템으로 목록을 전송하고 이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차단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적발-통보 기관인 관세청은 보냈는데, 정작 차단 기관인 방통

위는 전달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마약 사이트가 성행해 온 셈이다.

김 의원은 "인터넷 마약 사이트 대응이 적발-통보 기관과 차단 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차단 목록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아 몇 년째 판매 사이트가 성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며 "마약사이트 적발과 차단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즉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 적발은 2015년 968명, 2016년 1,120명, 2017년 1,100명에 이어 작년 1,516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338명이 적발됐다.

이정복 기자

겨울용타이어 구매 혜택 티스테이션 이벤트 실시

겨울철 안전운전 준비하고 꾸미는 선물까지 받으세요!

글로벌 선도 타이어 기업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대표이사 조현범, 이하 한국타이어)의 타이 어 중심 자동차 토털 서비스 전문점 티스테이션(T Station)이 오는 12월 31일까지 겨울용 타이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윈터 아이셴트 페스티벌'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낮은 기온, 눈길, 빙판길 등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 시즌에 보다 안전한 드라이빙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겨울용타이어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운전을 위한 고객들의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대상은 '윈터 아이셴트 에보2'와 '윈터 아이셴트 에보2 SUV', '윈터 아이셴트 iZ2A', '윈터 아이셴트 X' 등 4개 제품이다.

먼저 내달 20일까지 티스테이션 매장에서 행사 대상 겨울용 타이어 4개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네오 플러스캐트 또는 주유권 4만원 18일까지 허태정 시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아프리카 출장길에 오를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가 이번 '2022 세계 지방정부연합(UCLG) 세계 총회'를 유치할 경우 140여개 국 1,000여개 도시정상 등 5,000여명이 방문하게 돼 세계 주요도시 정상들과의 교류 및 우호증진을 통해 대전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전 세계와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사 개최로 약460억 원의 생산 및 소득유발효과가 발생해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2022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개관사업에 맞춘 총회 개최로 대전의 마이스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태성 기자

2022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세계총회 대전유치 '유력'

차기 개최후보도시 자격으로 초청장 받아

대전시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아태지부 버나디아 사무총장으로부터 "2022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세계총회" 개최후보도시 자격으로 11월 11일 7일부터 18일까지 허태정 시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아프리카 출장길에 오를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가 이번 '2022 세계 지방정부연합(UCLG) 세계 총회'를 유치할 경우 140여개 국 1,000여개 도시정상 등 5,000여명이 방문하게 돼 세계 주요도시 정상들과의 교류 및 우호증진을 통해 대전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전 세계와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치열하고 대륙별 순환 개최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2년 대전 개최는 명분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허태정 대전시장은 "우 리시는 지난 2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미에서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유럽까지 전 세계를 방문하며, 총회 개최에 대한 지지를 요청해 왔다"며 "또한 여러 대륙과 함께 많은 회원도시들이 대전을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개최후보도시 자격으로 초청받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만은 없는 분위기다. 월드 사무국의 철저한 보안유지로 대전시가 단독후보도시인지 아니면 복수후보 중 하나의 도시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더반은 우리에게 행운의 땅이다. 1974년 1975년 4선5기의 홍수환 선수가 있었고, 2011년에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지가 확정됐으며, 우리나라 월드컵 출전 사상 첫 원정 16강에 진출한 곳도 바로 더반"이라며 "이번에도 기쁜 소식을 시민들께

전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아태지부 사무국으로부터 공식 초청장을 받은 대전시는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허태정 시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아프리카 출장길에 오를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가 이번 '2022 세계 지방정부연합(UCLG) 세계 총회'를 유치할 경우 140여개 국 1,000여개 도시정상 등 5,000여명이 방문하게 돼 세계 주요도시 정상들과의 교류 및 우호증진을 통해 대전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전 세계와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사 개최로 약460억 원의 생산 및 소득유발효과가 발생해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2022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개관사업에 맞춘 총회 개최로 대전의 마이스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태성 기자



한전원자력연료, 협력사와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동반성장·안전한 일터 조성 소통의 장 마련

한전원자력연료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및 청렴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간담회를 가졌다.

정상방 사장은 30일 ㈜진영정기를 방문, 원활한 부품공급 및 품질관리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현안사항 공유와 협력업체의 애로사항 경청 등 상생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날 상생실천 서약서 서명식도 함께 진행되어 양사는 청렴과 안전을 생활화하고 인권

경영 정착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뿐만 아니라, 한전원자력연료는 사내의 안전관리 점검 경험을 갖춘 인력이 협력사의 주요공공과 시설을 점검하고,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기회 등을 제공하는 "안전점검 기술지원 및 교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정상방 사장은 "우리 회사가 지난 37년간 원자력연료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 할 수 있었던 것은

협력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노력해왔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협력사들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협력과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원자력연료는 지난 24일 ㈜한국국토스프링스 29일 ㈜에스지엔지 등 전국에 소재한 원자력연료 부품공공 협력사를 직접 방문, 현장 점검과 소통에 노력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동반성장 추진실적 평가에서 2018년도를 비롯해 7년 연속 '양호' 이상 등급을 유지해오고 있다.

송병기 기자



송병기 기자

김병목 총장, 교육혁신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

<신성대학교>

2019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 교육혁신 부문 수상자로 선정

김병목 신성대학교 총장이 지난 24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 서울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 시상식에서 교육혁신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산업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중앙일보가 공동 후원하는 '2019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은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무한한 경쟁 속에서 공정한 평가 기준을 통해 기업·기관의 공신력을 높이고, 리더들의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해 미래가치 모델로 삼기 위해 제정됐다.

김병목 총장은 2013년 제3회 신성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2013년 세계적 수준의 대학(WCC, World Class College) ▲2014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2015년 고교-대학 통합교육 육성사업(Uni-Tech) 및 학교기업 지원사업 ▲2016년 공학기술혁신사업 ▲2017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자율개선 대학 ▲2019년 대학 혁신 지원사업 2개 영역(자율협약형, 후진학 선도형) 선정 등 국가 재정지원 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또한 ▲학생중심의 첨단 교육 인프라 구축 ▲체계적인 행정운영 및 우수교원 초빙 ▲인성과 실용 중심 교육과정 개편 등 강한 리더십으로 대학의 발전과 교육혁신을 동시에 이끌고 있다.

신성대는 교과과정의 현장 기반 창의융합 교육운영, 비교과 과정의 취업 및 창업역량 지원과 학생 진로 및 정서지원, 최신 교육방법을 활용한 교수학습 지원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혁신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신성대의 독창적이며 대표적인 혁신 프로그램인 '창의융합 현장 기반 교육과정 운영 및 질 관리+교육방법 활용 확대 및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미래 융합 실무 전문성 함양을 위한 창의융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수학습모형 개발 등 교육체제를 혁신하고 있다.

신성대는 교육혁신의 모델 대학으로서 '4차 산업 수요 맞춤형 미래 융합 核心+인 양성'라는 대학교육 혁신의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당진=최근수기자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혁신에 주력하고 있다.

제11회 충남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우수 일자리 제공과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우수 일자리 제공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9일 공주백제체육관에서 '위풍당당' 고졸취업 우수기업과의 성장을 위한 만남'이란 주제로 제11회 충남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날 취업박람회에는 충남과

대전의 우수 벤처·강소 기업 28곳과 37개 직업계고 학생 1500여명, 체험학습 참가 학생 900여명 등 총 2400여 명이 참여했다.

충남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더 많은 양질의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충남산학융합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 충남벤처협회, 충청남도경제진흥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참여 우수업체를 안내받았다. 업체에서는 취업박람회를 통해 90여 명의 학생을 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취업박람회는 현장 체험학습 중인 직업계고 재학생과 중학교 학생을 위해 진로·진학 설계를 위한 직업계고 전공 체험관, 인적성 검사관, 취업컨설팅관, 유관기관 홍보관 등의 진로 탐색 부스를 운영했다.

충남교육청 전종현 미래인재과장은 "취업박람회가 직업계고 학생에게는 선취업 후학습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찾아 3년간의 결실을 맺고, 기업에게는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재 발굴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충남 서천에 국내 첫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들어서

충남 서천군에 우리나라 최초의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가 들어선다.

도는 29일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공동 주관한 전국 지자체 대상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 공모에 서천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건립 위치는 서천군 장항국가산업단지이며, 오는 2023년까지 연면적 3700㎡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모 선정에 따라, 센터 운영 관련 항공보안장비 인증·시험평가 연구개발(R&D)과 사업화 등은 국비로 진행한다.

도에서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시험인증센터 구축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하 기관으로, △항공보안장비 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 지원 △국가 보안 강화 정책 연계 연구개발(R&D) 수행 △보안검색장비 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제공 등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에 대해 종합 지원한다.

시험인증센터에서는 공항, 철도, 항만, 국가 주요 시설·공공시설 및 첨단산업체의 비밀 보호 및 안전 보장을 위해 사람·화물 등을 검색하는 엑스선·원형 검색 장비, 휴대용 금속탐지장비 등 보안검색장비를 다룬다.

현재 국내에는 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도가 없어 미국·유럽 등에서 인정받은 장비를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 보안검색장비 시장

의 경우 99.7%가 국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시험인증센터를 기반으로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유체해 보안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경우 △생산유발 4843억 원 △부가가치유발 1547억 원 △고용유발 1794명 △취업유발 2239명 등의 효과가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앞으로 보안장비 성능인증제가 항공분야를 시작으로 철도, 국가 주요 시설 등의 분야까지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은 국내 첫 사례로, 이를 마중물 삼아 도 서남부권이 우리나라 보안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특 정 ●●●

나눔실천 유공자포상식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31일 오후 2시 KEB하나은행 대전영업부 지점에서 열리는 2019년 나눔실천 유공자 포상식에 참석.

언론사 기자단 오찬간담회



김종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 31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언론사 기자단 오찬간담회에 참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차 회의



황인호 동구청장 = 31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

다중밀집시설 복합재난현장훈련



박용갑 중구청장 = 31일 오전 10시 충남대학교병원 관철염·재활센터에서 실시되는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대비 다중밀집시설 복합재난현장훈련' 참석.

청춘정거장개소 1주년 기념식



장종태 서구청장 = 31일 오후 5시 청춘정거장(서구 대덕대로 198)에서 열리는 청춘정거장 개소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나(Na)다운 김치 페스티벌



정용래 유성구청장 = 31일 오전 10시 유림공원에서 열리는 나(Na)다운 김치 페스티벌에 참석한다.

행복지표개발 주민원탁토론회



박정현 대덕구청장 = 31일 오후 2시 구청청렴관에서 열리는 대덕구 민행복지표 개발 주민원탁토론회에 참석.

광고문의

(042)538-3030

중구 용두동,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장려상 수상

대전 중구 용두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권효숙)는 29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주민자치분야 장려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열린사

빗물체험 '물순환 테마파크' 조성

'도심속 친환경 랜드마크'로 기능, 대전 둔산 샘머리공원에 새롭게 태어난다

대전 서구 둔산 샘머리공원이 빗물의 자연순환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물순환 테마파크'로 새롭게 태어난다. 또 둔산·월평 일원 물순환 선도시 시범사업지역이 물순환거리 및 저영향개발(LID) 투어코스로 조성돼 도시 관광자원화 된다.



대전시의 특징적인 물순환 특화사업 계획에 보면, 시범사업지역 내 녹지축의 중심인 샘머리공원 내 빗물정원, 빗물미로원, 잔디광장 등 다양한 저영향개발(LID)시설을 집대성한 빗물체험학습장으로 조성돼 '도심속 친환경 랜드마크'로 기능하게 된다.

또한, 물길찾기 빗물미로원, 미세먼지 저감용 빗물분사 미스트, 빗물파고라 등을 설치하고 기존의 콘크리트 광장(4,240㎡)을 투수성 잔디광장으로 개선, 녹지를 증가 및 시민 휴식공간 확충을 꾀했다. 이와 함께 둔산·월평지역 공원과 공공기관 및 주요도로를 연결하는 '물순환 거리'는 샘머리공원을 출발점으로 둔지미-한밭대로-은평-시정-시에틀공원을 순환하는 총 연장 8.2km의 저영향개발(LID) 투어코스 개발로 시민과 외지인이 찾는 레저·힐링공간으로 재창조된다.

대전시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물순환 선도시 조성은 수질악화, 도시침수, 지하수 고갈, 열섬현상 등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도시재생사업"이라며 "둔산센트럴파크 조성과 연계해 중북공사를 방지하고 녹지축 연결, 이용률 제고로 예산절감 및 사업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시 이종의 맑은물정책팀장은 "물순환테마파크 조성, 저영향개발 투어코스 등 대전만의 특징적인 물순환 특화사업들이 설계에 반영돼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환경부 설계승인 후 내년 4월부터는 본격 시설공사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물순환도시 시범사업'은 둔산·월평 일원(2.67km)에 오는 2021년 상반기까지 약 250억원의 공사비(국비 70%)를 들여 식생체류지 조성, 투수성 포장, 침투측구 설치 등 저영향개발(LID)기법을 적용해 물순환 기능을 회복하는 빗물-그린인프라 확충사업이다.

김태선 기자

최적의 트램 선정 방안 세미나

대전시는 2025년 대전 시내 곳곳을 달릴 트램 차량 선정을 위해 30일 오후 2시 시청 10층 회의실에서 '대전시 최적의 트램 선정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철도교통 및 토목계도 분야 교수,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철도시설공단 및 서울교통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등 철도차량 전문가와 철도제작사 현대로템과 프랑스 알스톰(Alstom) 관계자, 실무 담당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트램 차량 선정에 위한 트램차량 건설비 및 운영비, 유지보수, 안전·신뢰성 등 트램 선정 시 주요 고려사항과 트램 노선 36.6km 순환선을 무가선 방식으로 운행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하는 차량시스템별 특성고 등인 수차제 차량 선정 테스트 포스(TF)팀 전문가 자문회의의 결과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이어 전문가들이 최적의 차량 선정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으며, 가장 핵심적인 차량시스템에 대해서는 배터리 방식, 슈퍼커패시터방식, 제3제조 방식 등 각각의 차량시스템 특성을 비교하고 시스템을 혼용하는 방법과 운영 시나리오까지 집중 논의했다.

대전시 박재호 트램도시공역본부장은 "앞으로 분야별 전문가와 실제현장에서 철도차량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철도 및 철도공사 등 관계자, 국내외 차량 제작사 등과 면담하게 검토하고 논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대전시 최적의 트램 선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2023년 트램 마당 행사 개최까지 그동안의 활동을 인정받아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태선 기자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에 서구,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대전 서구구청장장종태는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탄방동)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했다.

이번 설치는 국민연금공단이 민원발급수요가 많아 무인민원발급기 필요성이 높은 곳이어 설치해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제적증·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의 경우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승인까지 통상 1~2개월이 소요되어 올 12월이나 내년 1월 중에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오는 30일에는 갈마도서관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기준에 갈마아파트 1단지 관리

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해당 아파트 주민 외에 민원인들의 접근이 어려워 이용에 불편이 있었다.

이에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갈마도서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구 관계자는 "서구에서는 총 30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에 있다"라며 "주민의 민원발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발급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주기적인 재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대덕구, 내년 공약 및 현안사업 가시적 성과 창출 당부

대덕구구청장 박정현이 2020년도 역점 추진할 구정핵심사업으로 ▲대덕e로움 안정적 정착 ▲주민자치회 전 동(洞) 확대 ▲대덕구형 행복정책 모델화 ▲김호연재 문화콘텐츠 활성화 ▲대덕특구 상생협력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생활so책합화사업 본격추진 ▲사회적경제 활성화 ▲이동전화도시 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역축제 연계 문화적 도시재생 등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대덕구는 30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박정현 대덕구청장을 비롯한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이날 보고된 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을 12월 중에 마련해 내년 예산 반영한 후 2020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대덕구는 이날 보고된 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을 12월 중에 마련해 내년 예산 반영한 후 2020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선 기자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뇌졸중의 날 건강강좌 개최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개원 50주년 기념 뇌졸중의 날 건강강좌가 30일 오후 2시 병원 9층 대강당 상지홀에서 열린 가운데 신경과 이상봉 교수가 '뇌졸중의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서대전농협, 조합원 자녀장학금 지급

서대전농협은 30일 유천동 본점 대회의실에서 조합원 대학생 자녀 45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모두 4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송용범 조합장(가운데)은 인사말에서 "지금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열심히 학업에 정진해 국가와 지역의 큰 인재가 되어

달라"며 "장학금 지급이 조합원님 교육비 부담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더욱 조합원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대전농협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조합원 자녀에게 약 7억 8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송병배 기자

충주시 홍보맨이 중구에 뒀다

충주시 김선태 주무관 초청 직원 온라인 홍보 교육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31일 오후 4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충주시 홍보담당관 김선태 주무관을 강사로 직원 SNS교육을 실시한다. 김선태 주무관은 공무원 일상을 솔직하게 담은 '충주시 공

무원 VLOG'로 딱딱한 공공기관 홍보의 틀에서 벗어난 과격적인 시도도 전국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현재 충주시 유튜브 계정 구독자는 6만 명을 넘어섰고, 이는 지방자치단체 구독자 수 1위 서울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주무관은 3년간 초보 공무원으로 홍보팀에서 근무하면서, 세련되진 않지만 솔직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기까지의 경험담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강사와 참석자 모두가 같은 공직자이기에 공감대 가 더욱 크게 형성되고, 앞서 성공한 공공기관의 홍보사례를 생생하게 들으며 벤치마킹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용갑 청장은 "이번 교육으로 우리 중구 직원들도 홍보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배워,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참신한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중구 홍보맨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온라인 과학문화 플랫폼 '유성다과상' 본격 오픈

유성구, 주요 과학행사 소식 등을 한눈에 살펴본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대덕특구의 주요 과학 행사, 소식 등을 한눈에 살펴보고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과학문화 플랫폼 '유성다과상' (유성에서 다함께 과학을 상상하다)을 다음달 1일 본격 오픈한다고 밝혔다.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특구 내 개별기관에서 주최하는 다

양한 과학문화 행사정보도 한눈에 볼 수 있다.

특히, 구는 지난 7월부터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메인 페이지 디자인을 확정하고 사전 베타 테스트 점검을 실시했으며, 올 연말까지 운영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과학 프로그램 정보 이용과 참여에 불편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유성다과상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주민들에게 원스톱으로 과학문화 콘텐츠를 제공해 나가는 등 과학도시 유성만의 4차 산업혁명 선도 정책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봉관 기자

회시민연합이 주관한 이번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주민자치 ▲지역활성화 ▲학습공동체 ▲주민조직네트워크 ▲제도정책 5개 분야로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했는데, 주민자치분야에서 접수된 114건

중 서류와 인터뷰 심사를 거쳐 22건의 우수사례가 최종 선정됐고, 여기에 용두동도 포함됐다.

용두동은 좋은 용두마을 위원회(위원장 전주영)를 구성해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마을회의와 총회를 개최하고, 주민 화합을 위한 마을축제를 개최하는 등 주민자치로써의 활동

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권효숙 동장은 "주민 스스로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모임을 만들고, 여러 차례 회의와 마을조사·총회를 통해 내년도 사업을 선정하고, 주민통합 어울림 한마당 행사 개최까지 그동안의 활동을 인정받아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태선 기자

● 통정 ●

예산군체육회 이사회



황선봉 예산군수= 31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예산군체육회 이사회의에 참석하고 오후 2시 충남도서관에서 열리는 충남혁신도시 지정 촉구를 위한 100만인 서명달성 기념행사에 참석.

100만인 서명 달성 기념행사



김석환 홍성군수= 31일 오후 2시 30분 충남도서관에서 열리는 충남혁신도시 지정 촉구 100만인 서명 달성 기념행사에 참석.

2020년 유소년 승마단 창단

내년이면 충남 홍성군에 유소년 승마단이 창단될 예정이다. 홍성군은 홍성군 승마장을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인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한 결과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군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도비를 포함해 총 8천만 원의 창단 비용을 지원받게 되며, 유소년 승마단에 교육훈련비, 각종 대회참가 경비, 승마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군은 내년 상반기에 유소년 승마단 창단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기승심사)을 통해 유소년 승마단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그 후 유소년 승마단은 연중 주 2회 이상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승마교육과 훈련을 받게 되며, 앞으로 유소년 승마대회와 승마단 발표회 등 각종 승마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승마기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 선정은 유소년 승마단 창단을 위해 관내 우수한 학생들이 전국 유소년 대회에 참가하고, 군에서 지속적으로 유소년 승마에 관심을 갖고 노력한 결과"라며 "유소년 승마단 창단으로 홍성군 홍보와 승마산업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군에서도 학생들의 정서를 함양시키고 승마 유망주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세종시 상가 내 장애인화장실 부실관리 해소 캠페인 실시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장애인 편의 증진기술포럼센터와 함께 30일 새롬동 2-2 생활권 상가빌딩 지역에서 상가 내 장애인화장실 관리 서비스 제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애인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 문잠김 및 청소도구 보관 등 부실관리 해소를 위해 상가 관리사무소 및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 문화를 일깨우고자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상가 관리사무소 및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화장실 유지관리·운영 및 올바른 이용 안내문을 배부하며 이해를 도왔다. 이찬우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 화장실의 올바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상가 관리사무소 및 시민들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홍보캠페인 정례회 추진 등 상가 내 장애인화장실 부실관리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daejeontoday.com

충남형 선도모델 · 국가 정책화 나서

충남도, 2019년도 5차 확대간부회의... 충남형 선도과제 · 역점과제 보고 · 토론

충남도는 사회·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선도모델을 발굴, 성과가 입증되거나 만족도가 높은 충남형 정책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거나 국가 정책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도는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승조 지사와 김용찬 행정부지사, 실국원본부장과 직속기관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5차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충남형 선도모델과 11·12월 역점 추진과제 보고·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실국원별 선도모델 44건을 발굴하고 제출된 과제들을 내용 보완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구체화하고 연말까지 정부제안 및 국가 확산과제를 선정, 발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공공기관 아이키움 사업 확대 ▲전국 최초 24시간제 보육 등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과 ▲특고노인 공동생활 활 홈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등 어르신의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한다. 이어 ▲여성권익보호시설 증가



자 치유 개선 ▲소상공인 사회보 험료 지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공공체 조성을 위해 추진한 시책들을 보고했다. 또 ▲지역차원의 경제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운영 ▲장애인체육 활성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 건 연료전환사업 공동협력 ▲밀원수 확대 조성 등의 사업도 확산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승조 지사는 "어느 시도보다 모범적으로 추진한 역점 시책들을 국가 정책화 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대한

민국을 선도해 나가자"고 말했다. 양 지사는 "지금까지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시책들 중에는 중앙정부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 시켜나갈 성격의 시책들과 타 시도에 적극 전파하여 국민에게 고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과제들도 있다"며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선도모델들이 더 행복한 충남과 대한민국을 건인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중앙정부건의, 타 시도 확산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형 선도모델 전국 확산 제

안과제 보고에 이어 11·12월 역점 추진과제 보고에서 각 실·국은 ▲내년 정부예산 국회 심의 대응 ▲충남 미래전략과제 발굴 추진 ▲재난 예방 및 완벽 대응체계 확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추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추진 ▲해양산업 발전전략 후속조치 계획 등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양 지사는 "2020년 정부예산안에 금년 대비 5,665억원이 증액된 6조 9,528억원을 반영했다"며 "이에 만족하지 말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점 예산들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국회 활동이 필요한 시점으로 적극적인 활동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도민들의 염원이 100만인 서명이라는 결실로 나타난 만큼 청와대와 국회는 물론 중앙 정부에 도민의 뜻을 전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미세먼지 대책을 포함하여 겨울철 폭설과 한파 등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이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환 기자

11월부터 고운남측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평일 야간 10시까지 운영시간 확대... 일요일 09~18시 개관

세종시 고운동 남측 도서관(동장 임재일)이 오는 11월 1일부터 평일 야간 10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시간을 연장 운영한다. 이번 고운남측도서관 연장 운영은 사서직 배치에 따라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활성화할 도모하고자 추진했다. 이에 따라 1일부터는 평일 이용 시간이 기존 09~18시에서 09~22시로 확대되며, 기존에 휴관하던 일요일에도 문을 열고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은 기존과 같이 휴관한다. 이로써 고운동도서관(고운동 북측 북쪽)은 토요일, 고운남측도서관(고운동 남측 북쪽)은 일요일에 교차 운영함으로써 고운동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선 기자

의 체육관 등의 시설 운영시간도 기존 평일 야간 21시까지에서 22시까지로 확대 운영해 고운동 주민들의 복귀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임재일 동장은 "고운남측도서관의 개관 시간 연장으로 고운동 남측 북쪽 내 체육시설과 청소년 센터의 운영 시간도 확대된다"며 "주말에 교차로 운영되는 2개의 도서관을 통해 복서와 문화활동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예산종합운동장에 정규규격 불링장 및 다목적체육시설 건립

2021년까지 총 78억원 투입, 전국단위 대회 유치 등 기대

예산군이 예산종합운동장 내에 공인 경기가 가능한 수준의 정규 규격 불링장 및 다목적체육시설을 건립한다. 군은 예산로 320-17번지에 소재한 예산종합운동장 내에 약 480 일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불링장 및 다목적체육시설을 건립 중이다. 이번 불링장 및 다목적체육시설은 최근까지 관내에 유일했던 민간 불링장의 폐장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하고, 정규규격인 18메

터 이상의 불링장을 신설함으로써 군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전국단위 대회 유치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건립이 추진된 것이다. 이번 건립되는 불링장 및 다목적체육시설은 총예산 78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3370.69㎡의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지상 1층에는 18메인의 불링장, 지상 2층에는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2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해 군관리계획(변

경을 결정했고, 건축물 경관심의 를 거쳐 올해 7월 건축협의를 완료 해 사업자선정과 계약을 진행했으며, 9월 착공해 오는 202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링장 및 다목적 체육시설이 완공되면 생활스포츠 인 불링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공인 경기를 유치하고 전국단위 경기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여가와 운동을 통한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구 기자

충남도 사회지표 조사 분석 결과
홍성군민 지역사회 주민 만족도 향상

홍성군은 충남도 사회지표 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향상됐다고 밝혔다. 사회 지표 조사는 충남도에 서 도민들의 사회적 상태를 양적 및 질적 측면에서 측정하여,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조사해 연말에 발표하는 자료다. 군에 따르면 충남도 통계정보관에서 공시한 사회지표조사 결과 홍성군을 집중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

먼저 사회 안전에 대한 홍성 군민의 인식 조사결과 2018년 군민의 30.3%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17.5%에 대비하면 약 13%가 증가한 수치다. 자연재해의 경우 2018년 군민의 32.8%가, 범죄위험의 경우는 29.8%가 안전하다고 답변해 전년도 28.2%, 21.2%와 대비해 보면 지역 사회 내 안전 체감도가 점차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군민들의 교육 만족도도 크게 향상됐다. 2018년 교육 만족도는 40%로, 2017년 29.3%에 비해 10% 이상 향상됐다. 사 교육 만족도도 2018년 34.8%로 조사돼 전년 26.1%와 대비해 8% 증가했다.

군에 거주여건 선택의 중요한 요소가 교육 환경인만큼 이 같은 결과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 밝혔으며, 홍성형 행복교육지구 지정 등 교육 인프라 확장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내 소득 생활 만족도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2018년 10점 만점에 4.45점을 기록해 2016년 4.16점에 비해 상승했으며, 300만 원 이상 월평균 가구소득 비중도 2018년 40%로 2017년 26.1%와 대비해 139% 가늘어나 지역경제 및 가계 소득창출 간 선순환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군은 지역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2018년 10점 만점에 6.26점을 기록해 전년도 5.98점 대비 증가추이를 나타냈으며 삶에 대한 가치 또한 6.46점으로 전년 5.95점 대비 크게 상승했다. 군민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의식 존중도도 향상됐다고 응답했다. 아동청소년 분야는 54.7%가 존중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장애인 경우 54.6%,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44.9%의 비율을 나타냈다. 전년 대비 모두 5%에서 10%사이의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민들은 70% 이상의 지역 내 소속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자긍심과 애郷심이 높다"며, "군민들의 지역 만족도를 높여 갈 수 있도록 교육, 문화, 관광, 일자리 창출 등 군민수혜 시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예산군 귀주대첩 천년맞이 11월 1일 행사 개최

예산군은 오는 11월 1일 대술면 이터리에 소재한 강민첩 장군 묘역에서 귀주대첩 천년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고려 현종 당시 동 여진과 거란의 침입을 막은 귀주대첩이 일어난 지 천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고 귀주대첩에서 큰 공을 세운 강민첩 장군의 얼을 기리기 위해 진주강씨 연영공 대종회 주최로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귀주대첩 천년을 기념하는 기념비 제막과 시향, 오찬, 예술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생활 시즈2 똑똑세종 실험실 최우수 과제 '과속방지턱 안전하고~' 선정

올 한 해 세종시민이 팀을 이뤄 직접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이를 해결해가는 슬기로운 세종생활 시즈2 똑똑세종 실험실의 최우수 과제로 '과속방지턱 안전하고, 즐겁게'가 선정됐다.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29일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4층 중정에서 '2019년 똑똑세종 제안콘서트'를 열고 올해 사업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시상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슬기로운 세종생활 시즈2'에 참여한 7개 팀이 지난 3개월간 실험 진행 중 겪은 애로사항과 결과를 극복하는 과정은 물론, 실험 결과 도출된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발표에 이어서는 함께 지리 한 시민들이 현장투표를 실시, 사전 서면심사 결과와 합산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도전상을 선정했다. '과속방지턱 안전하고, 즐겁게' 과제를 수행한 트리플세이프팀은 정밀한 측정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부상으로 는 300만 원을 받았다. 특히 트리플세이프팀은 24 개 기존 방지턱의 형태와 상부

길이, 높이, 통과속도 등에 따른 충격량을 측정한 수치를 바탕으로 국토부 규격에도 적합한 개선된 과속방지턱을 제안해 공감을 얻었다. 이외에도 우수상에는 수세미 사용만으로 지속하고 쉽게 친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수사모' 팀의 '바퀴, 바퀴 수세미를 다 바퀴' 과제가 차지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수사모 팀에는 부상으로 200만 원이 수여됐으며, 장려상 2명, 도전상 3명도 부상으로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는 똑똑세종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채택된 시민제안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똑똑세종 우수 제안자로는 '세종시 학생 안전 문제'를 제안한 이신영 학생과 '조치원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예약방법 개선'을 제안한 차연우 학생 등을 비롯한 32명이 선정됐다. 이춘희 시장은 "똑똑세종 실험실은 정책의 수요자인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검증하는 세종형 제안제도"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똑똑세종 실험실을 추진해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창구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우리/동네

내년도 국비 추가확보에 적극 나서

천안시, 지역현안사업 해결 필요한 정부예산 추가 확보 위해

충남 천안시가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필요한 정부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30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의 중인 국회를 방문하는 등 국비 추가확보 활동에 나섰다.

이날 구본영 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 등은 국회를 방문해 국토교통, 예결위,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10개 사업 총 사업비 9조5560억 원 중 내년도 국비 7,367억 원을 정부 예산안에 증액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 증액을 건의한 사업은 수도권전철 복합기법관 연장 6,788억 원,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399억 원, 천안~아산고속도로 건설 81억 원, 국도21호 경부선 목천나들목입체화 20억 원 등 지역 간 연



결도로망 확충 사업이다. 시는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인 수도권전철 복합기법관 연장사업은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조사용역에 따른 비용-편익(BC)분석 등 경제논리에서 벗어나 복합기법관 방

문 활성화 및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제4차 국가 철도망 반영 등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천안 북부BIT산업단지 진입 도로 개설

19억 원, 신규 사업인 한국형 스타트업 테스트베드 기반 구축 4억 원도 증액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도심 상가지역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천안공고 지하 광역주차장 조성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안 5억 원 편성 확보와 총 사업비 129억 원 중 국비 65억 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했다.

구본영 시장은 "앞으로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의 간담회와 정부부처, 국회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복지재단, 천안시민 행복기부

3000번째 정기 후원참여 기념식

천안시복지재단이 이사장 문은수는 지난 29일 홈플러스 천안신방점에서 천안시민 행복기부 3000번째 후원 참여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천안신방점은 2018년 천안시복지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40명의 임·직원이 정기후원 약정을 체결하고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날 홈플러스 천안신방점의 신규직원과 미가입 직원 58명이 추가로 천안시복지재단 정기 후원 약정에 가입하며 '천안시민 1만명 행복기부' 3000번째 후원을 돌파하게 됐다.

권은경 점장은 "임직원들과 뜻을 모아 정기적 사회공헌활동에 동참하고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며 "전 직원이 천안시민 1만명 행복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은수 이사장은 "십사일반이라는 말이 최근 들어 우리 재단에서는 큰 의미로 다가온다"며 "기업의 흥 큰 기부역시 재단에 큰 힘이 되지만 소액이라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우리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후원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 원성2동 노인회분회

어르신 치매교육 실시 '호응'

천안시 원성2동(동장 이해경과 노인회분회(분회장 김재영)는 지난 29일 원성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치매안심마을 지정에 따른 수시 치매교육을 실시해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교육은 노인회분회 경로당 소속 30여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천안시 동남구 치매안심지원센터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신옥란(한국치매예방협회 천안시지부장) 강사를 초청해 진행됐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어르신을 관찰하는 방법, 어르신을 대하는 방법, 처음 만나서 라포형성하는 방법, 치매검사지 사용 및 활용법 설명 등을 초보자들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날 관내 노인회분회 경로당 소속 어르신들은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수강했으며, 특히 치매예방에 필요한 다양한 기법 등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 실시해 어르신들의 학습만족도가 높았다.



천안시 성정1동 주민자치회

주민주차 관련 토론회 개최

천안시 성정1동 주민자치회(회장 윤재훈)는 지난 29일 문화재단 강당에서 주민 100여명과 천안시 교통정책과,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성정지구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주차 관련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민 주차문제와 주차난 해결에 관한 내용을 주민, 관계자가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주택가 주도로와 상가, 빌라, 종교시설 주변 이면도로 등에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어 주거 주민들의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토론했다.

천안=이정복기자

학교가 미술관으로! '천안시 오늘미술관 프로젝트'

주제 따라 다양한 시민들이 작가로 참여하는 공공미술 사업



충남 천안지역 내 초·중·고등학교가 알뜰달록 무지개색으로 입혀져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천안시는 '우리학교 무지개' 공

공미술 전시를 내년 3월 말까지 천안용소초등학교, 천안봉명초등학교, 천안봉서초등학교, 천안두정중학교, 천안제일고등학교의 5개 학

교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시가 추진하는 '오늘미술관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오늘미술관 프로젝트는 거리, 공원,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열리는 전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주제에 따라 다양한 시민들이 작가로 참여하는 공공미술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제1회 전시 '천안색깔 무지개'를 시작으로 제2회 전시 '우리동네 무지개', 제3회 전시 '호국의 꽃'을 진행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우리학교 무지개는 가로수, 가로등, 벤치 등 공공시설물에 천을 감아 연출하는 패브릭 그래픽(Fabric Graphic) 천을 활용한 그림을 활용해 학교별로 학교 정문, 교내·외 펜스 등에 천을 감은 공공

천안 지역기반 뮤지션 '바비핀스' 외국 무대 진출

충남음악창작소가 발굴한 뮤지션 인디위크 캐나다 진출 확정



충남 천안시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충남음악창작소)이 발굴한 지역기반 뮤지션 '바비핀스'가 다음 달 외국으로 진출한다.

지난 2017년 추진한 음반제작지원사업 '아이엠 뮤지션'에서 금상을 받은 지역기반 신예 뮤지션 바

비핀스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충남음악창작소)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으로 오는 11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음악 축제인 '인디 위크 캐나다 2019(Indie Week Canada)'에 참가하게 됐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바비핀스는 지난 10월 1일부터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최·주관한 2019 서울 국제뮤지페어(Mu:Con, 이하 뮤콘) 쇼 케이스에 참가하고 '인디 위크 캐나다 2019' 라인업에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바비핀스는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인디 위크 캐나다 페스티벌 기간 중 최소 3회 공연할 기회를 갖게 됐으며, 이는 충남음악창작소 발굴 뮤지션 중 최초로 외국으로 진출하는 첫 사례다.

한국적인 정서를 가장 매력적으로 표현하고 '고급진 B급'을 추구하는 '신세대 그룹사운드' 바비핀스는 국악장단을 모던 락 사운드에 접목시켜 다양한 장르의 도전을 추구하는 밴드로서 주로 충남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는 국제 뮤직 페스티벌 '인디 위크 캐나다'는 세계 각국 250여 팀의 뮤지

천안시 동남구, 재난체험으로 직원 안전역량 강화

동남구청과 동남구 읍면동 직원 대상으로 실시



천안시 동남구가 지난 24일부터 31일까지 총 5일 동안 상반기에 참석하지 못한 동남구청과 동남구 읍

면동 직원을 대상으로 충청소방학교 안전체험관에서 '2019 하반기 동남구 안전체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안전사고에 대한 실질적이고 생동감 있는 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재난상황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 안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3월 7일과 8일 이틀간 총 4회에 걸쳐 1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상반기 동남구 안전체험 훈련' 종료 후 참여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더욱 수준 높은 체험이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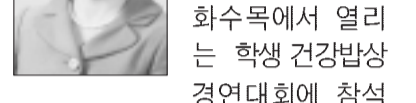
중요훈련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산불, 산사태, 태풍, 수난, 지진 등 자연재난에 대한 체험과 도시철도, 고층화재, 교통사고, 실내화재 등 사회재난체험을 4개반으로 편

등 정 4차분회의



구본영 천안시장= 31일 오전 10시 천안시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26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 참석.

학생 건강법상 경연대회



가경신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31일 오후 1시30분에 아름다운 정원화수목에서 열리는 학생 건강법상 경연대회에 참석하고, 오후 2시30분 천안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2019 감성터치 교육가족 힐링콘서트에 참석.

천안 운전면허 학과 시험장 '문전성시'



천안에 지난달 문을 연 운전면허 학과시험장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 9월 25일 천안축구센터 내 1층에 개소한 천안 운전면허 학과시험장에서 현재까지 총 901명이 응시(1일 평균 43명)하고, 743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시험장은 천안종합터미널과 천안역에서의 접근성도 뛰어나 천안시민뿐만 아니라 아산, 평택 등 인근 시민들도 찾아와 시험을 치르며 많은 인원이 방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는 시험장 내에 관내 소재 11개 대학교 읍면동별 민원을 안내하는 다양한 리플렛 8,000매를 제작 배포하는 등 지역경제 유발효과와 홍보 효과도 동시에 얻고 있다.

천안 운전면허 학과시험장은 20명의 응시생을 수용하는 시험장과 교통안전교육장, 접수실, 대기실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당일 접수부터 시험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학과시험을 위해 인근 운전면허시험장까지 직접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결해 연간 1만2000여 명이 시험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이 공감하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안=이정복기자

천안시 두정도서관

11월 인문학 행사 운영

충남 천안시 두정도서관 관장 문원주이 11월에는 '인문학'을 주제로 '도서관 속 인문학' 관련 행사를 다채롭게 운영한다.

11월 한달간 인문학과 관련된 추천도서들 전시 및 목록 제공은 물론 추천도서를 읽고 책 속의 감동을 손글씨로 표현하는 독후행사를 연다.

다음달 1일부터 27일까지 2층 로비에서는 '올로올로 시리즈'(사계절출판사) 원화아트프린트 전시를 선보인다.

프로그램으로는 11월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목요일(총4회) 오후 4~6시 초등 1~4학년 16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인문학 교실 '그림책 허브부터' 강좌가 운영된다.

11월 16일에는 일반인 50여명을 대상으로 '모든 요일의 기록'의 저자인 김민철 작가가 '나를 기록하는 시간'을 주제로 읽고 쓰고, 듣고 쓰고, 찍고 쓰고, 배우고 쓰고, 쓰기 위해 쓰는 카피라이터의 기록을 담은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광고문의 (042)538-3030

경기불황, 정국불안... 불법 도박 판친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불법도박 범죄가 총 29,004건 적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도박 범죄 및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불법도박 범죄가 총 29,004건 적발됐으며, 이로 인해 112,660명(구속 708명, 불구속 111,952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불법도박 적발 건수는 2014년 6,680건, 2015년 6,009건, 2016년 7,253건, 2017년 4,973건, 2018년 4,089건, 검거인원은 2014년 26,478명, 2015년 25,683명, 2016년 24,824명, 2017년 19,154명, 2018년 16,521명으로 불법도박과 검거인원이 줄고 있는 추세 이기는 하나 여전히 매년 4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도박 범죄 29,004건 중 '도박'이 26,136건, '상습도박'이 1,184건, '도박개장'은 1,684건을 차지했다.

또한 '도박' 검거 인원은 101,870명, '상습도박' 검거인원은 3,017명, '도박개장' 검거인원은 7,77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도박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5,783건)였으며, 이로 인해 23,772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서울

(4,333건, 18,351명), 부산(3,946건, 8,209명), 대구(2,008건, 5,438명)가 뒤를 이었다.

김병관 의원은 "매해 불법도박 범죄가 4천건 이상 적발되는 등 불법도박이 여전히 상행하고 있다"며, "불법도박 범죄 근절을 위해 단속 강화와 함께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도박중독 재활치료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3,157필지에 대해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www.realtyprice.kr),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고, 오는 12월 2일까지 서면(우편·FAX),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특성 등 지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세종=김태성기자



중구, 2019년 적극행정과 법률·소송 교육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30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9 적극행정과 법률·소송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2명의 강사가 법률·소송과 적극행정으로 주제를 나누어 진행했다.



아산시,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공동조사 수습 유해 안치 아산시와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 단장 박선주 총독대령예교수)은 지난 30일, 아산시공설봉안당에서 지난 5월 9일부터 충남 아산시 부역혐의 사건 중 당정면(동우리)과 염치읍(새지리) 일대에서 진행한 제7차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조사에서 수습한 유해 안치행사를 진행했다.



공주시,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 공주경찰서(서장 전창훈)는 지난 29일 신원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공주경찰서장, 녹색어머니회 및 교직원, 모범운전자회 등 유관기관 약 50여명이 참석한 등굣길어린이 캠페인을 실시했다.



정복양 대전총남병무청장,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복무요원 협의 정복양 대전총남병무청장은 지난 29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만나 사회복무요원 수요확대 등 병무청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청양경찰서, '2019년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청양경찰서(서장 이관형)는 지난 29일 대회의실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체치안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2019년 청양군 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했다.

홍성군, 공공기관의 재난 대응 능력 강화 위해

2019 무각본 합동소방훈련 실시

홍성군은 30일 공공기관의 재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홍성소방서와 합동으로 무각본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각본없는 소방훈련으로 예고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화재가 발생한 상황 부여를 시작으로 화재 신고·전파, 초기소화, 대피, 응급처치 등이 실제와 같이 실시되는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하는데 주안점을 주고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홍성군청 건물을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함과 동시에 방송을 통한 화재발생 전파, 직원 및 민원인 대피유도, 중요 물품 반출, 소화기와 옥내소화전을 이용한 자체 진압 순으로 실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 및 군청 지위소방대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해 가운데, 훈련을 마치고 소화기 사용방법과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대전 학교폭력 잇따라...경찰 종합대책 마련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학생 보호 등 종합대응 방안 마련 추진

대전경찰청이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학생 보호 등 종합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최근 대전지역 일부 학생들의 등교길 집단폭행과 보복폭행 등이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기영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교육청·일선 학교 등 교육당국과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집단·보복폭행 등 주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선제적이고 엄정·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운용 중인 학교전담경찰관 인력을 집중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내 전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이번 학교폭력이 발생한 피해자 및 가해자 관련 5개 중학교에

대해 시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학교폭력 피해 실태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는 등 추가 피해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대부분의 학교폭력 수사가 가해자의 신병이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복폭행 또는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우범소년송치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보복폭행을 예방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폭력 사건접수 시 이에 대한 정보는 수사부서에서 SPO(학교전담경찰관)로 명확하게 통보하고, 다시 SPO는 가해자 및 피해자 소속 학교로 규정해 따라 신속하게 통보하기로 했다.

통보 이후에도 담당 형사-SPO, SPO-학교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에 대한 촘촘한 이중관리를 통해 보복폭행 등 2차 피해를 막는

다. 경찰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해당 경찰서에 학교폭력 종합대응팀을 구성·운영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집단폭력 등 중대하거나 2개 경찰서 이상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청 학교폭력 종합대응팀으로 격상시켜 운영하는 등 지방청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종합대응팀은 수사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되고, 추가 피해 발생 시 최초 접수관서(부서)에서 일원화되도록 수사를 지도하는 한편, 피해자 보복폭행 차단을 위한 신변보호 업무를 관련 기능과 협의해 신속하게 조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 피해자와 그 가족 및 SPO, 학교측 담당자도 참여시켜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정복기자

충청남도 도민감사관 역량 강화 청렴교육 받는다

각급 공공기관 청렴시민감사관대해 체계적 교육 지원

충청남도 도민감사관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청렴교육이 실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은 30일 오후 3시 충청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충청남도 도민감사관 70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법의 사각지대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 등을 권고하고 독립적 지위를 바탕으로 감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기준 243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에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도민감사관으로 임명해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충청남도 도민감사관 교육은 국민참여예산이 지원되는 국민 대상 청렴교육 사업의 하나로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과 충청남도청이 협력해 마련했

다. 제5기 충청남도 도민감사관 위촉식과 연계해 실시되며 새롭게 위촉된 도민감사관 70명을 포함하여 도·시·군 관계 공무원 등 약 150명이 참여한다.

이번 교육은 판소리 '춘향가'를 청렴의 관점에서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신춘향전 판소리 공연'과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 및 실제 상담사례를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낸 참여형 교육인 '청탁금지법 토크쇼'로 구성된다.

김정환기자

전국 혁신로드 위한 '대전 청년 사회혁신활동가' 모집

29일부터 수시접수, 내달 8일~9일 서울

15일~16일 전주, 22일~23일 대구 탐방



대전시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COMMONZ FIELD 대전) 사업의 일환으로 '대전 청년 사회혁신활동가'를 모집해 전국 혁신로드를 떠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대전 청년 사회혁신활동가 전국 혁신로드'는 전국의 주요 청년 활동 공간 탐방과 지역의

청년 네트워크 교류를 통해, 전국의 다양한 사례연구와 경험을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시는 30일부터 이메일(djsicenter@gmail.com)이나 온라인 신청양식(http://c11kr.usb),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이메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는 (가칭)대전사회혁신센터 홈페이지(www.대전사회혁신센터.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사회혁신에 관심이 있고 전국의 청년 활동 공간 및 청년 단체들과의 교류에 관심 있는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내달 8일~9일 서울을 시작으로, 15일~16일 전주, 22일~23일 대구의 순으로 각 지역 20명씩 진행된다.

대전시는 11월 30일 옛 충남

도청 내 소통협력공간에서 대전 청년들과 서울, 전주, 대구 등 전국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전국 청년 사회혁신활동가 교류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COMMONZ FIELD 대전) 사업은 지난 5월 대전시가 행안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1년까지 총 120억의 예산을 들여 혁신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전시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은 "이번 사업이 전국 청년 사회혁신가들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자리인 만큼 청년들의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통해 지역을 넘어 전국단위의 청년 사회혁신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문의는 (가칭)대전사회혁신센터 (042-224-2457)로 하면 된다.

김태성기자



서산소방서, 주방 1개 이상 K급 비치

'주방용 소화기' 비치 홍보 나서

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주방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등 주방에 1개 이상의 주방용 소화기(K급)를 비치할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재발화 위험성이 높다.

지난해 6월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음식점 등 주방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유류 화재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확산속도가 빠르므로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비치해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형기자



건보공단대전본부, 세종경찰청과 맞손

효율적 대응체계 마련 업무협약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는 30일 오전 세종지방경찰청과 세종경찰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 대두되는 요양기관 부정수급 등 보험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험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상시 공조체계 유지 ▲보험범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 상호 공유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범죄예방 홍보 협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안희무 본부장은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 불법개설"과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사례를 설명하고, 건강보험공단 재정 누수 및 국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으로 요양기관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보험범죄 근절 및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경찰청 박희웅 청장은 "보이스피싱 등 서민생계를 위협해 서민을 불안(不安)·불신(不信)·불행(不幸)하게 만드는 '3사기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보험범죄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없애고 안전하고 건강한 의료 환경과 공정이 신뢰가 뿌리내리는 사회가 실현되도록, 기관 간 모든 역량을 하나로 합쳐 성실히 추진해 나가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

송병배기자

작년 우울증 진료받은 10대 청소년 4만명 육박

우울증 진료인원 전년 대비 약 1만 2천명 증가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로 진료 받은 10대 청소년의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질환 진료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10대는 37,233명으로 2016년 22,538명에

비해 무려 14,695명(65.2%)이나 증가했으며, ▲'불안장애' 진료인원도 2018년 18,220명으로 2016년 14,126명보다 4,094명(29%)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황장애'는 2016년 1,966명에서 2018년 2,928명으로 2년새 962명(48.9%) 증가했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는 같은 기간 10,370명에서 12,919명으로 2,549명(24.6%) ▲'수면장애'

에는 4,167명에서 4,811명으로 644명(15.5%) ▲'식사장애'는 591명에서 697명으로 106명(17.9%) ▲'강박장애'는 3,049명에서 3,390명으로 341명(11.2%) ▲'습관 및 충동장애(분노조절장애)'는 1,217명에서 1,237명으로 20명(1.6%) ▲'화병'은 508명에서 616명으로 108명(21.3%) 증가했다.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학업 스트레스와 진로고민,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족의 위(Wee)프로젝트뿐 아니라 모바일 상담 등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상담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다각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복기자

세종시교육청, 학생 사회참여발표대회 성료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지하 1층 컨벤션홀에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세종 학생 사회참여발표대회'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세종 학생 사회참여발표대회'는 학생들이 지역사회 문제와 교육 정책 등에 대해 고민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안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열리고 있다.

12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5일 1차 보고서 심사 이후, 29일 2차 정책 제안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심사는 ▲문제 인식의 참신성 및 적절성 ▲문제해결의 객관성 및 타당성 ▲정책 실현 가능성 ▲발표력 등을 기준으로 삼고 보고서 심사 및 발표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결과를 선정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은 △환경 △학교현안 △청소년 관련 정책 △교통 △교육정책 △장애우 복지 △봉사활동 △사회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했다. 세종=김태선기자

이번 세종 학생 사회참여발표대회는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세종시 초·중·고등학교 15팀과 학교교육과정 중 사회참여 수업 및 동아리활동을 운영한 중·고등학교 4팀, 총 19개팀

12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5일 1차 보고서 심사 이후, 29일 2차 정책 제안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심사는 ▲문제 인식의 참신성 및 적절성 ▲문제해결의 객관성 및 타당성 ▲정책 실현 가능성 ▲발표력 등을 기준으로 삼고 보고서 심사 및 발표 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결과를 선정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은 △환경 △학교현안 △청소년 관련 정책 △교통 △교육정책 △장애우 복지 △봉사활동 △사회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했다. 세종=김태선기자

금산교육지원청, 학원 화재대피 훈련

금산 읍내 위치한 진명학원·한미입시학원·연세음악미술학원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하여 작년

에 처음 시도한 학원화재 대피훈련을 29일 금산 읍내에 위치한 진명학원, 한미입시학원, 연세음악미술학원에서 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금산군청과 협력하여 밀폐된 공간인 학원에서 실제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고, 대피훈련을 실시하여 학원에 다니는 관내 학생들의 재난위기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금산교육지원청 김초연 행정과장은 "최근 화재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학원에서도 화재대피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화재 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복기자

충무교육원, 2019 인문독서기행 캠프

인문학의 숲에서 생각의 향기를 채우다



충무교육원(원장 김정식, 충남 아산 염치읍 소재)은 충남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2019 인문독서기행 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2기는 도내 고등학교 1학년 60명을 대상으로 2박3일 일정으로 운영되며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운영했다. 아산=리량주기자

2019 인문독서기행 캠프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평소 어려워하는 인문학을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 인문학이 삶 속에 녹아있음을 깨닫는 기회를 제공하며 심미적 감성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을 높이는 데 있다. 특히, 독서의 계절이라 불리는 가을의 문턱에서 책과 잘 어울리는 파주출판단지에서 캠프가 진행됐다. 학생들이 평소 디베이트를 어려워 한다는 점을 고려해 '스쟁아저씨의 염소'라는 동화책을 가지고 첫째날 인문학 특강의 주제 '선택, 자유 그리고 책임'이라는 주제의 연장선에서 디베이트를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아산=리량주기자

Wee센터 직원 역량강화 슈퍼비전 실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Wee센터 전문상담인력 8명 대상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유미선) Wee센터는 22일, 29일 양일에 걸쳐 Wee센터 집단상담실에서 Wee센터 전문상담인력 8명을 대상으로 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슈퍼비전을 실시했다. 슈퍼비전은 손애리 소장(손애리 심리연구소)을 슈퍼바이저로 모시고 내담자들을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상담 개입방법에 대한 슈퍼비전이 이루어졌다. 또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담자들이 평소 상담을 진행하며 가졌던 의문들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고 자문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미선 교육장은 "이번 슈퍼비전을 통해 논산 계룡 관내 학생들에게 더 좋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논산=김성구기자

'아산시민 보험 혜택 가이드' 제작·배부

아산시민이라면 꼭! 챙겨야 할 보험 혜택 가이드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아산시민이라면 꼭! 챙겨야 할 보험 혜택 가이드'를 제작 배부했다. 시는 시민들이 해당 보험에 대하여 알지 못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각종 보험지원사업을 한 눈에 보기 쉽게 보험현황 및 보장내용, 청구방법 등을 상세히 담았다. 보험 혜택 가이드는 시민안전보험 등

11개 보험이 안내돼 있으며 ▲시민안전보험 ▲시민 자전거보험 ▲풍수해 보험 ▲자원봉사자 종합보험 ▲수출 중소기업 단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가족재해보험 등 시민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이 가득 담겨 있다. 보험 혜택 가이드는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배부해 시민들이 언제든지 보험 혜택 내용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선우문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보험 혜택 가이드 배부를 통해 그동안 홍보 부족으로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했던 각종 보험 혜택을 널리 알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각종 시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소규모 사립유치원 운영비 추가 지원

대전교육청, 동부 21개원·서부 25개원 총 1억 3800만원 지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유아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2020년 에듀파인 도입 및 유치원인관리시스템 참여 등 소규모 유치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 자운영비를 추가지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지원은 소규모 유치원을 대상으로, 동부 21개원, 서부 25개원 총 46개원에 원당 300만원, 총 1억 3800만원을 지원한다. 추가지원비는 유아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교재교구 구입 ▲공공요금 ▲방과후과정운영비 ▲시설 교체 및 수리 등으로 유치원 운영에 적합하게 사용된다. 대전교육청 김운배 유초등교육과장은 "금회 추가지원이 소규모 유치원을 운영함에 있어 다소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되며 향후에도 유아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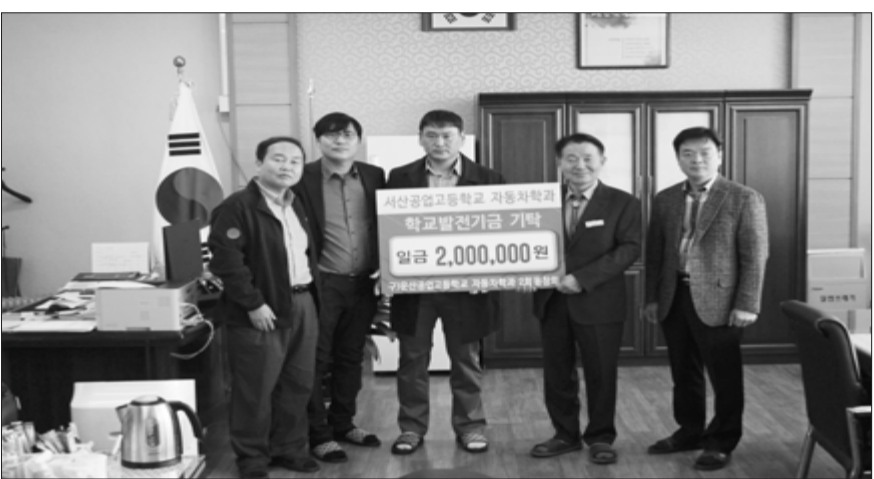
충남교육청, 2019 충남 혁신교육 한마당

충남 혁신교육의 활성화·내실화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1월 2일 공주대에서 마을 교육 활동가와 학부모, 교직원, 지자체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충남 혁신교육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충남교육청과 학교 현장

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공유해 충남 혁신교육의 활성화,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1부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함께 그리다', 2부 '충남 학교혁신 함께 돌아보다'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함께 그리다'에서는 충남 혁신학교, 학교협동조합, 행복교육지구 등이 42개 부스를 운영하고, 마을학교 운영, 학교협동조합 설립, 마을과 함께하는 진로직업체험지원, 청소년 자치배움터 운영 등 17개 주제로 세미나를 운영한다. 2부 '충남 학교혁신 함께 돌아보다'는 5개의 부스 운영과 9개의 분과 모임을 개설해 충남의 여러 수업연구회가 학교 교사와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수업혁신 실천 사례를 나눈다.



사산공업고, 자동차학과 2회 졸업생 학교발전기금 기탁

공주대, 제5기 '나누리봉사단' 발대식

자발적인 봉사활동 통해 지역사회의 기대 부응



공주대학교(총장 원성수)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8일 대학본부에서 임달오 학생지원처장을 비롯한 나누리봉사단 학생 12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기 나누리봉사단 발대식 행사를 가졌다. 나누리봉사단은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공주대 대표 봉사단체로 대학내 구성원의 역량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하고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이번 제5기 나누리봉사단은 지역사회와 각 전공의 특성을 반영한 봉사활동 아이디어를 공유 개발해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성장하는 봉사단으로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공주=정상범기자

'2019년 책 읽는 가족' 인증서 수여

당진도서관, 인증서와 현판·소정의 상품 전달



당진교육지원청 당진도서관(관장 문정숙)은 지난 29일 '2019년 책 읽는 가족' 인증서와 현판, 소정의 상품을 전달했다. '책 읽는 가족'은 가족 단위의 독서 생활화 증진을 위해 당진교육지원청 당진도서관이 추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선정해 공동명의로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있는 가족 독서운동 캠페인이다. 이번 당진교육지원청 당진도서관에서 선정한 '오은정 가족'은 오은정, 여인영, 여인성, 여유진'은 도서관을 가족 모두가 활발하게 이용하며 독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다른 이용자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 문정숙 관장은 "책 읽는 가족 선정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책 읽는 분위기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 독서문화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마련해 책 읽는 가족이 많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당진교육지원청 당진도서관(관장 문정숙)은 지난 29일 '2019년 책 읽는 가족' 인증서와 현판, 소정의 상품을 전달했다. '책 읽는 가족'은 가족 단위의 독서 생활화 증진을 위해 당진교육지원청 당진도서관이 추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선정해 공동명의로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있는 가족 독서운동 캠페인이다. 이번 당진교육지원청 당진도서관에서 선정한 '오은정 가족'은 오은정, 여인영, 여인성, 여유진'은 도서관을 가족 모두가 활발하게 이용하며 독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다른 이용자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 문정숙 관장은 "책 읽는 가족 선정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책 읽는 분위기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 독서문화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마련해 책 읽는 가족이 많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대덕노인복지관 '찾아가는 행복 나눔 콘서트' 진행

서산시-뉴질랜드 농·특산물 해외 판촉전

오는 1일 ~ 10일까지 뉴질랜드 오클랜드 한인마켓 5개소 · 미국(LA · 산호세) 3개소에서 동시 진행

2015년부터 공격적이고 체계적인 수출 마케팅을 펼쳐가고 있는 서산시가 올해에는 뉴질랜드와 미국에서 농·특산물 판촉전을 동시에 개최한다.

서산시는 2015년 미국 서부 첫 시작으로, 2016년 미국 동부와 서부, 2017년에는 캐나다까지 판매행사 영역을 확대하면서 미주 한인교포시장 진출을 도모해 왔다.

급변하는 기존에 기반을 다져온 미국 시장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한인시장을 처음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여 품목, 총 11만 불(약 1억 3천만원) 상당의 농·특산물을 9월중에 이미 선적을 마쳤으며, 지역별로 미국 LA에 2만불, 산호세에 3만불,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6만불 상당의 농·특산물이 보내져 본격 행사를 앞두고 있다.

특히 급변 첫 진출하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판촉전에는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랜드 판촉전에는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시 관계공무원과 농협 그리고 농업인으로 구성된 7명의 방문단이 현지에서 출장

의 적극적인 수입과 유통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오클랜드한인회도 방문해 한인 교포시장에서 우선 관심을 가지고 서산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와 함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입증근 농식품유통과장은 "2015년부터 해외 마케팅을 추진하면서 당해 연도 1억 8천여만 원을 시작으로, 2016년 2억 8천여만 원, 2017년 2억 3천여만 원, 2018년 1억 2천만원의 판매성과를 올린 바 있다"며 "앞으로도 현지 한인회, 수입·유통업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출시장을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류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뉴질랜드에는 약 3만여 명의 교민이 거주 중이며 그중 70%에 달하는 2만1천여 명이 오클랜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서산=김정환기자



품목별 연구협회의 활동사례 공유

당진시, 제 15회 실적평가회 열려 ·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30일 센터 본소 일원에서 30개 회 품목 연구회원과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5회 품목별 연구회 실적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적평가회는 농업인들이 품목별 연구 활동을 하면서 향상된 농업기술의 공유와 우수사례 발굴을 비롯해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해나루 우수농산물 브랜드 가치와 당진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마련했다.

이날 야외 전시장에서는 품목별 연구회에서 출품한 농산물이 한자리에 전시됐으며, 농원관에서는 우수 품목연구회 사례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연구회원들은 1년 간 정성 들여

생산한 농산물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기 위해 '사랑의 농산물'을 당진시에 전달했으며, 순성중학교 3학년 조성오 군과 경북항공고 2학년 김민호 군에게 각각 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한 이날은 농업인들을 위한 명랑운동회도 열려 1년 간 농업활동으로 인해 지친 심신을 회복하고 농업인 간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한편 품목별 연구회는 지난 10월 26일 개막해 내달 3일까지 이어지는 국화전시회와 연계해 각 품목연구회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장터도 운영 중이다.

당진=최근수기자



'산불지상진화 경연대회' 열려

충북지방산림청, 산불 초동대처 역량 강화

충북지방산림청(청장 박도환)은 지난 29일 충북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 일원에서 관계 공무원과 산불제단 특수진화대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지상진화 자체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실제 산불진화활동과 유사한 경연으로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의 장비와 운영체계의 이해를 높이고 산불발생 시 지상진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연은 각 소속기관별로 10명씩 5개 팀이 참가하고 산악형 산불 현장을 가

상으로 설정해 진화전략, 장비 숙련도, 팀워크 훈련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최우수로 선정된 충주국유림관리소 팀은 11월에 개최될 전국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박도환 충북지방산림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소속기관 간 산불진화 경험과 노하우를 교류하는 등 지상진화 역량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공주=정상범기자



롯데백화점 대전점 (점장 손울경) 영패션 브랜드 주크(ZOOC)매장에서 직원들이 롯데제과의 협업한 뉴트로 패션 한정판 아이টে임을 선보이고 있다. 가을 컬러에 복고풍의 감성을 재해석한 뉴트로 트렌드에 맞춰 70년대 출시한 롯데제과의 가나초콜릿과 빠다코코넛을 모티브로 후드, 맨투맨, 캔버스 마켓백을 구성해 내달 10일까지 판매한다.

공주 산성시장 가을페스티벌 열려...공주페이 10억 달성

산성시장 이용객 감사 한마당 · 내년도 공주페이 50억 발행 선포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오는 11월 2일 산성시장 문화공원에서 '2019 산성시장 가을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시는 그동안 산성시장을 사랑해 주신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2일 저녁 6시 30분부터 산성시장 가을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으로, 전영록과 이병학 등 인기가수가 출연하는 흥겨운 무대도 선보인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주사랑 모바일 상품권인 공주페이 발행 10억 달성을 축하하는 특별한 자리도 마련된다.

공주시는 많은 시민과 지역 상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으로 인해 단기간에 10억 달성이 가능했던 만큼 감사함을 표하고, 나아가 내년도 50억 발행을 목

표로 하는 다짐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월 충남지역 최초로 발행된 공주페이는 출시 70여일 만에 가입자 7천명 이상을 확보했으며, 현재 음식점과 전통시장, 병원, 학원 등 가맹점 820여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김정대 지역경제과장은 "소비자와 상인 모두 혜택이 주어지는 착한 소비 '공주페이'를 보다 활성화 시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가을페스티벌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석을 다지는 뜻 깊은 자리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아산시 대한상공회의소가 선정한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다산제약 · 신리엔지니어링㈜ · ㈜에이치앤이루자

대한상공회의소가 10월 28일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기업데이터, 사립인, 잡플래닛과 함께 발표한 올해의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639개사 중 3곳이 아산시에 위치한 기업으로 나타났다.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은 근무환경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 소개하는 사업으로 신용등급 BB이상, 최근 2년간 매출액 증가, 전년도 수익률이 순증가한 중

소기업의 참가 신청을 받아 제작자 평점 상위 30%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대상은 ▲청년이 선호하는 CEO 비전 · 철학 ▲성장가능성 ▲직원추천율 ▲임원역량 ▲워라밸 ▲사내문화 ▲승진기회 · 가능성 ▲복지 · 급여 등 총 8개로 우수기업을 최종 선정한다.

아산 지역에서 선정된 기업은 ㈜다산제약(직원추천율), 신리엔지니어링(주)

<승진기회 및 가능성>, ㈜에이치앤이루자(복지 및 급여)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관내 일하기 좋은 우수기업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정된 기업정보는 대한상공회의소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사이트에서 ([http:// goodcompany.korcham.net/](http://goodcompany.korcham.net/)) 확인할 수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군 다음달 6일부터 공공비축미 건조벼 수매

생산능가 손실 최소화 위해 태풍피해 벼도 전량 매입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11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군내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공공비축미 건조벼를 수매한다.

건조벼 매입 품종은 삼광, 새일미 2가지로 모두 6만4304포를 사들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연이은 태풍과 잦은 강우에 의한 피해 벼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농가 손실을 줄이고 품질 낮은 쌀의 시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희망농가에 한해 피해 벼 전량을 매입한다.

피해 벼 매입은 흑미, 녹미 등 유색미와 가공용 벼를 제외하고 품종제한 없이 이루어지며, 톤백(600kg) 또는 포대벼(30kg) 형태로 출하해야 한다.

피해 벼 매입 가격은 피해날일 비율에 따라 공공비축미 1등급 매입가격을 기

준으로 결정되며, 수매 직후 중간정산금(2만원/30kg)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공비축매입가격 최종확정 후 연말까지 지급한다.

청양군 관계자는 "포대벼 수매장에 공공비축 수매인력을 지원해 고령 농가를 도울 계획"이라며 "또한 태풍 피해 농가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매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정상범기자

충남도민 대상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120대 무상지원

도공 대전충남본부, 내달 4일부터 15일까지 톨게이트 사무실 방문 신청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대전충남 본부는 작년 지역 장애인들에게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120대를 무상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내달 4일부터 15일까지 충청남도 등록 장애인에 대상으로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120대를 무상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감면단말기 무상지원은 도공 대

전충남본부 직원 341명이 모금으로 조성된 기부금을 활용한 것으로 차량등록증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복지카드를 지참해 톨게이트 사무실을 방문 신청하면되며, 신청자 중 충청남도 거주 여부(차적주소), 고속도로 이용횟수 등을 심사 후 무상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송병배기자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도빌딩 7층

동정

정기회의



오세현 아산시장은 31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지역차별의회의 정기회의'에 참석.

역량강화 교육



김홍태 당진시장은 31일 오전 11시 나라사랑공원에서 열리는 제39회 자유호 희생자 합동위령제에 참석, 오후 3시 서산 베니키아 호텔에서 진행되는 6급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에 참석.

환황해포럼



가세로 태안군수는 31일 오전 11시 40분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열리는 '제5회 환황해포럼'에 참석.

마을봉사의 날 행사



김도곤 청양군수는 31일 오전 11시 남양면 금천리에서 열리는 마을봉사의 날 행사의 참석.



아산시 병역명문가문패 달아주기

3대 모두 현역복무 미친 가문 · 총10가문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난 29일, 아산시 영치읍 방현리 흥승일씨 일가에 '병역명문가 문패'를 달았다. 이날 문패를 전달받은 흥승일씨 일가는 3대에 걸쳐 가족 6명이 총 172개월의 군복무를 마친 병역명문가다.

특히 흥승일씨 부친은 6.25전쟁에 참전해 수많은 성과를 발휘하는 등 국가에 공헌한 바가 크다.

유병훈 부시장은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병역을 이행하신 병역명문가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병역명문가 분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병역명문가는 3대(조부, 아버지, 백부, 본인, 형제, 사촌형제)가 모두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이며, 시는 총10가문에 병역명문가 문패를 달아 병역의무 이행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한편, 시는 김희영 시의원이 발의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 할 예정으로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해 적극적으로 예우 및 지원 할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당진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확대

오는 11월 1일부터 기존 1개 병원에서 12곳으로 늘고 지원기준 완화

당진시민들의 '보호자 없는 병실' 이용이 오는 11월 1일부터 대폭 편리해진다.

보호자 없는 병실은 직장과 일상 생활, 경제적 여건 등으로 간병이 여의치 않은 입원환자 가구에 간병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진시는 그동안 당진종합병원 한 곳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병원으로 지정해 저소득층을 대상 지원해 왔다.

당진시 보건소에 따르면 보호자 없는 병실 이용자는 2017년 332명, 지원 일수는 3,415일에 2018년 360명, 3910일로 늘었으며, 올해도 9월 말 기준 349명,

3385일에 달할 정도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러한 수요를 감안해 시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 기존 저소득층 외에 건강보험료 납부 하위 40%(직장 6만5540원, 지역 4만2230원) 이하에 해당하는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지원 대상자는 당진시에 주소와 거주 중인 사람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 납부 하위 20% 이하 자(직장보험 4만5,602원, 지역보험 1만7,704원) ▲긴급지원대상자 등이었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건강보험 납부 하위 21%~40%에 해당하는 시민들도 보호자 없는 병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당진시는 30일 업무협약을 통해 보호자 없는 지정 병원도 기존 1곳에서 충남도 협약 병원 중 12곳으로 대폭 늘렸다.

당진시와 협약을 맺은 병원은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서산노인전문병원 ▲천안시립 노인전문병원 ▲홍성의료원 ▲홍성 노인전문병원 ▲건강대학교 부여병원 ▲당진종합병원 ▲서산 중앙병원 ▲서해 의료재단 서해병원 ▲예산명지병원 ▲예산종합병원이며, 해

당 12개 병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1월 1일부터 무료 간병서비스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병원에서는 복약과 식사보조, 위생·청결, 안전관리, 운동·활동 보조 등 환자의 편의와 회복에 필요한 무료 공동간병서비스를 24시간 동안 전문간병인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급성기 환자 1인 당 연간 30일, 요양병원 이용 환자 1인 당 연간 45일이며, 회복 지연 또는 재입원 시 담당의사 소견서를 첨부할 경우 최대 15일 더 연장 가능하다.

당진=최근수기자

우리/동/네



태안군, '군민과 직접 소통' 찾아가는 군수실 운영

가세로 군수가 지난 29일 고남면을 찾아 '현장군수실'을 열고 민원인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고남면에서 열린 '현장 군수실'에서 군수는 ▲기경주항 월파 방지시설 설치 ▲고남2리 교차로 가로등 설치 ▲장곡4리 상수도 설치 등 다양한 지역 민원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며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아산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아산사랑상품권 지급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10월 29일 관내 성실납세자 157명을 추첨해 3만원 상당의 아산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성실납세자 경품추첨은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에 의거 주민의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해 상품권을 지급해오고 있다.

이번 성실납세자 추첨은 경찰청 무원(청원경찰)의 입회하에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따른 무작위 전산 추첨방식을 통해 2019년도 정기분 자동차세 및 재산세를 납부한 관내 거주자 대상으로 체납이 없는 성실납세자 중 157명을 추첨했으며, 당첨자에게는 상품권 및 감사문 등

가우편으로 개별 발송된다.

서장원 징수과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소중한 세금을 납기 내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농업기술센터 직불제 농지 토양검사 실시



청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지 가운데 토양검사를 무작위 선정해 토양검정을 실시한다.

검정 항목은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 칼륨으로 토양검정 분석 결과를 농촌진흥청 표준분석법 기준함량과 비교해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일반농지는 유기물 1140g/kg 유효인산 150mg/kg 이하, 치환성 칼리 0.3cmol/kg 이하로, 3가지 검사항목 중 2가지 이상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특별관리대상 필지로 분류돼 2차년도에 재검사를 해야 한다.

재차 부적합 시에는 직불금이 감액되는 등 지급 제한 기준이 적용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직불제 토양검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토양환경을 만들고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의 인식 전환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토양검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받을 만큼 비료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양=정성범기자

바닷물로 절여 미네랄 풍부한 태안 절임배추 · 예약 폭주

배추가격 평년대비 최대 2배까지 올라 포기당 5천 원 선



김장철을 맞아 배추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태안 청정 바닷물로 절인 '절임배추'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배추 상품 1포기 가격은 이달 25일 기준

5,680원에 달해 평년 2947원보다 약 2배, 지난해 3533원보다는 60.8%나 올랐다.

이는 조가을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가을 배추 재배면적의 5%인 940ha가 유실됐고, 뿌리들림이나 병해 등 작황부진의 요인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태안의 신선농수산물과 특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영농조합법인 '태안장터'의 절임배추 예약이 폭주해 관심을 끌고 있다.

태안장터 절임배추는 생산업체(안면도 농수산)가 약 1만㎡ 면적에서 직접 배추를 재배해 원가를 낮춰 절임배추 20kg(7~8포기) 한 박스를 3만 9천 원에 판매하고 있다.

현재 '태안장터'를 통해 11월 8일 배송분부터 예약을 받고 있으며 배추 1포기 가격(5680원)보다 싼 가격(포기당 약 4800원)으로 절임배추를 판매하고 있어 지난해보다 예약이 크게 늘고 있다.

태안산 바닷물 절임배추는 태안 청정 바닷물을 이용, 전통 방식대로 배추 솥을 쪄 1~2일 간 절이는 과정을 통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고 아삭한 식감이 오래 유지된다.

또한 일반 소금으로 배추를 절임

경우 소금에 따라 김치가 짜거나 쓴 맛이 나는 반면, 바닷물 절임배추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간이 배추에 끌고구 스팀되어 김치 맛이 고소하고 입맛에 따라 양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김장과정에서 육체적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배추절임 과정을 대신해주고 아파트 내에서도 간편하게 김장이 가능하며 김장 후 골칫거리인 김장 쓰레기도 줄일 수 있어 전국의 주부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48시간 동안 바닷물에 절이는 과정이 있어 4일 전에는 예약해야 한다"며 "태안 절임배추는 맛과 품질이 우수해 본격적인 김장철이 되면 하루 200박스(4톤) 가량 출하되는 등 전국적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11월 초부터 12월 초까지는 태안산 절임배추를 구입할 수 있다"며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태안 절임배추를 많은 분들이 맛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당진시 고대면 온마을이 학교가 되다

고대면 주민자치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주목

당진시 고대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온 마을이 학교다' 프로그램이 좋은 평가를 받으며 주민자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온 마을이 학교다'는 마을교육공동체 공모사업에 선정돼 운영하는 사업으로 마을과 학교의 교육협력을 통해 마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민과 마을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모두 4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인 '어르신 청춘교실'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당진시 고대면 지역 18개 마을을 순회하며 지역 어르신들에게 산야초 활용법과 건강체조 활동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달에는 2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대면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토요행복교실'을 운영해 향토와 천연비누를 학생들이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이 프로그램은 11월에도 고대면 지역 18개 마을을 순회하며 이어질 예정이다.

이후 12월에는 '세대 공감 이야기'가 있는 우리 마을 지도 만들기'와 지역 문화유산 찾는 우리 지역 바로알기 '친구야 소풍 가자' 프로그램이 대미를 장식한다.

특히 '온 마을이 학교다'는 외부 강사를 초빙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체 기획하고 재능기부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세대 공감과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청양군 대형 산불발생 대비 안전훈련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지난 28일 공설운동장에서 대형 산불발생 상황을 가상한 현장훈련을 갖고, 긴급사태에 대비한 진화 및 응급의료 체계를 점검했다.

사회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진행된 이날 훈련에는 청양소방서,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연합회, 청양의료원 등 8개 유관기관이 함께했다.

군 관계자는 "산불대비 훈련으로 토론훈련, 현장훈련을 모두 마쳤다"면서 "이어지는 다중이용시설 대응훈련, 지진대피훈련, 재난취약계층 화재 대피훈련, 안전문화 실천운동 등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정성범기자

아산시 세정과 친절·청렴교육 실시

아산시 세정과(장 김진)는 지난 28일, 세정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친절·청렴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친절·청렴 교육은 시민만족 증진을 위한 친절교육과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독려 및 신규 공무원 청렴서약서 작성 등으로 이뤄

졌다. 한기영 세정과장은 "정렬한 공직문화 조성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해 주기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시민 만족 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동네



동고동락 논산, 100세 건강공동체 만들기 우수성 인정받다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는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29일 대전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제1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제도정책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노인시설 운영자·종사자 인권교육

계룡시,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120명 대상

계룡시는 29일 오후 2시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시설 운영자와 종사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교육이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대상자들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시행을 위해 마련됐다.

인권교육은 집합교육 및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국가인원위원회 및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이날 교육은 충남남부노인보호기관의 전문 강사가 노인인권감수성, 노인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요령, 절차 등을 사례 중심으로 강의해 교육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교육에 참여한 종사자는 "이번교육을 통해 무심히 지나친 부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노인에 대한 공경과 존중으로 노인들을 돌봐드려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노인의 인권유린 및 학대관련 사건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노인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인 돌봄 역량이 더욱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지역노인의 행복한 노후생활과 관계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업회의소 설립추진단 제3차 회의

부여군, 2020년 정식 출범 위해 설립추진단 의견 모아

부여군 농업회의소 설립추진단은 지난 10월 28일 부여군청 브리핑실에서 설립추진단 및 TF팀 위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여군 농업회의소 설립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설립추진단 회의에서는 그동안 부여군 농업회의소 설립추진단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보고하고 설립추진에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각 단계별 회원가입 현황과 앞으로 회원모집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도왔다.

향후 출범할 농업회의소는 상반기까지 읍·면 순회설명회, 현장방문 및 전화, 우편발송 등을 통하여 현장농업인이 생각하는 다양한 농업정책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하반기에는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정협의회와 농정심의회를 거쳐 지역 농업인의 의견을 부여군 농업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업회의소에 가입한 회원들에게는 각종 소식지와 농업 관련 보조사업 등의 필요한 정보 제공과 현장농업인이 직접 건의하기 힘든 내용을 종합하여 대신 건의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결과를 알려주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정현 부여군수는 "부여군 농업회의소는 관주도가 아닌 민과 관이 함께 협치농정을 만들어가는 만큼 농업인단체에서도 적극적인 회원가입을 통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할 수 있도록 농업회의소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한국의 WTO 개도국 지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대응방안을 농업회의소처럼 농업인과 행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한다면, 보다 나은 정책이 나올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이광구 설립추진단장은 "부여군 농업회의소가 농업의 대표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농업인이 농업회의소에 가입하여 상향식 농정을 추진하는 기구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

부여군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쟁걸음'

박정현 군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3개 소관 위원회 방문 국비지원 건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부여군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9일 박정현 군수 이하 부여군 집행부는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호 의원실에 방문하여 부여가 세계유산도시로서 동아시아 고대 역사도시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국립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에 필요한 기본설계비 2억원과 무량사 일원 정비사업 추진 사업비 13억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국비 20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승래 의원실을 방문하여 면담하면서 부여읍의 저지대 시설채소 원예단지 상습 침수지역 구조개선을 위해 2020년 부여군 상습침수구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비 3억원



지원, 규암면 외 3개면의 가뭄 상습지역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2020년 정부의 기본조사 대상지에 선정되도록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건의했다. 박 군수 일행은 마지막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방문해서 현재 진행 중인 장암-임천(국도29호) 도로 건설 사업에 선형불량 구간 개선에 필요한 국비 15억원과 부여임천-강경(국지도68호)도로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 5억원, 충청남도 간

선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부여~청양(국도29호)도로 건설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충청인들의 염원인 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이 2020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어 조속히 철도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관심을 모아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한편,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별도로 충청권 지역구 국회의원을 본주하게 순회하며 군 현안사업에 필요한 내년도 정부예산을 각기 설명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이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만큼 행정력을 결집하여 각종 현안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계룡시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에 온 힘

배출가스 운행차량 집중단속,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계룡시는 배출가스 운행차량 단속,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11월 말까지 도로변, 차고지, 산업단지 등 매년 발생이 많은 지점에서 매년 발생 비중이 높은 화물차 등 경유 차량의 매년

허용기준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차량에는 조속히 정비토록 개선명령을 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운행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10월 31일에는 신도안면 괴목정 공원 주차장에서 배출가스 운행차량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 충청남도

에서 시행 예정인(수도권 지역 시행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에 대한 홍보도 펼칠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차량은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난 9월에 이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6일부터 7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현재 정상운행 상태여야 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042-840-2451~2453)으로 문의하면 된다.

온실가스 감축 우수로 2년 연속 환경부장관상 수상

서천군,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선정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난 30일 환경부가 주최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성과 보고회에서 2년 연속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환경부장관상을 수

상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도는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과 이행결과 분석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을 유도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이끌어내는 제도다.

환경부는 전국 836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평가에서 15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서천군은 작년에 이어서 전국 군 단위 기초자치

단체 중 유일하게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서천군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태양광 설치사업, 사무실 피크시간대 절전,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탄소포인트제,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열린 어린이집 12개소 선정

논산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열린어린이집 12개소를 선정했다.

열린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의 물리적 공간 개방성과 함께 보육프로그램, 어린이집 운영에 이르기까

지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뤄지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매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하며, 선정기준은 ▲어린이집 개방성 ▲부모 참여도 ▲지속가능성과 다양성 등 5개 기본영역과 세부항목

으로 나뉘어져 있다. 항목별 최저 점수 이상을 받아 총합계점수가 80점 이상인 어린이집에 대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이 이뤄지며, 올해는 신규와 재선정을 포함해 총 12개소 어린이집이 선정됐다.

시는 올해부터 신규 선정된 경우 1년, 2회 연속 재선정 2년, 3회 연속 재선정 3년의 유효기간을 정해 열린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

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선정된 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열린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선정하고 운영해 보육의 질을 높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논산=김태성기자

서천군 사회적경제 기업 행복드림장터 운영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개척과 상품 홍보를 위해 오는 11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서천군 국립생태원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 및 판매 운영

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군은 사전에 서천군지속순환경제센터에서 사회적경제 행복드림장터 참가 신청 기업에 대상으로 제품 홍보·판매로 수익창

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복드림장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애로사항과 요청사항 등을 청취했다. 서천군은 지금까지 지난 5월과

8월 두 번에 걸쳐 사회적기업 행복드림장터를 운영했으며, 11월 2일에 열리는 장터에서는 7개 업체가 참여해 전통공예품, 유리공예, 방형제 만들기 체험 등 한산소곡주, 지역농산물, 모시떡, 자연유정란, 수산물을 판매·홍보할 계획이다.

부여군 시가지 등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전정 개시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11월부터 국도와 부여읍 주요도로의 시가지 가로수 열매 및 야간조명에 장애가 되는 가로수를 정비하고, 도심 도로 경관개선을 위해 시범적으로 가로수 전정 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가로 환경개선, 건물 피해 예방, 운전자의 시야 확보, 보행자의 편의 등 생활민원 해소를 위해 가로수의 수형을 통일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시범적으로 부여읍 사비로 등에 이팝나무 외

가로수 140주에 대해 전정 사업을 실시하고, 폭설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국도(29호선, 40호선)에 대한 소나무 등 가로수 가지치기와 도로 경관개선에 나서는 한편 백제문화단지 진입도로에는 가로화단에 영산홍을 이식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시행 중 11월말까지 작업자와 중형 차량의 안전을 위해 차량 통제가 불가피하여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군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한편 깔끔하고 안전한 부여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여=김성규기자

농업인대회
최홍목 계룡시장= 31일 오전 11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15회 계룡시 농업인대회에 참석.
국제워크숍
노박래 서천군수= 31일 오전 10시 해양수산부에서 열리는 2019 서천갯벌 철새모니터링 국제워크숍에 참석.

서천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면개편 박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기존 6개 서비스로 나눠 운영돼 온 노인돌봄체계를 내년 1월 1일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전면 통합·개편됨에 따라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발맞춰 오는 11월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2곳을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 전체를 2개 권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수행할 수행기관을 1(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고하여, 11월 4일부터 12일까지 서류를 접수해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이어 106명의 수행인력을 채용한 뒤, 12월 중전문교육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면개편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혜택을 받게 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는 기존 1,169명에서 1,532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순한 안부 확인과 가사지원 중심의 서비스에서 병원 동행이나 같이 장보기, 방문건강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서비스 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공공성을 갖춘 지역사회 노인복지 네트워크의 중심기관과 효과적인 사업수행이 기대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의 많은 참여로 지역사회에서 이르신들의 돌봄을 주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의 중복이나 누락을 최소화하고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연무행복어린이집 "따뜻한 나눔의 의미 배워요"

연무행복어린이집(원장, 김보미)은 지난 29일 논산시 연무읍을 방문, '행복나눔시장'을 통해 얻은 수익금 72만1천원을 관내 한부모가정을 위해 기탁했다.

물건 판매부터 기탁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가정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나선 어린이들의 마음이 더해져 훈훈함을 더했다. 김보미 연무행복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이 직접 행사에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동주 연무읍장 또한 "아이들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모아 지역에 행복으로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읍 차원에서도 어려운 이웃이 소외받지 않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정

제5회 환황해 포럼 개최식



김정섭 공주시장은 31일 오전 9시 30분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열리는 제5회 환황해 포럼 개최식 및 역사문화세션 토론회에 참석한다.

목요 간부회의



김동일 보령시장은 31일 오전 8시 2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목요 간부회의, 오전 10시 대전체육관에서 열리는 바르셀로나운동 미소친절정경법집서결의 및 보령회원전진대회, 오후 1시 보령문화의전당에서 열리는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 오후 3시 신보령발전본부에서 열리는 지진가스폭발 현상훈련.

수석동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맹정호 서산시장은 31일 오전 10시 수석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리는 수석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에 참석, 오후 2시 30분 대산지역 대기환경영향조사 최종보고회에 참석, 오후 4시 서산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청소년 인권영화제에 참석.

화재대피 자체 소방훈련



백옥희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31일 오전 10시 신관유치원, 행복한울타리유치원을 현장 방문하고, 14시 공주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화재대피 자체 소방훈련에 참석한다.

연말까지 지방세 이월체납액 50% 이상 징수

보령시, 현재 46.4%... 5년 만의 충남도내 최고 실적 기대

보령시가 10월 기준 지방세 이월체납액을 46.4%까지 징수함에 따라 연말까지 50% 이상 징수와 함께 5년 만의 충청남도 체납액 징수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효과적 징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800만 원으로 목표대비 116%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는 ▲고액 상습체납자 징수책임자 지정 운영 ▲상습·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체납차량 임의재산 판매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5백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 대한 읍면동장 책임 징수 등을 중점 추진해 왔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되는 범위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 징수하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 능력 회복지원을 위해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징수활동도 동시에 추진한다.

시는 30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읍면동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효과적 징수 관리를 위한 점검에 나섰다.

앞으로는 ▲체납자 공공기록 정보자료 제공 ▲예금, 매출채권 등 채권 압류 중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지방세 체납액 공역 징수팀 운영 ▲추진실적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가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환급제와 사전등록제, 간단납부, 신용카드·인터넷지로 납부 등 납세편의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지방세와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가상계좌를 통해 한번에 낼 수 있는 세외통합 가상계좌와 수납관리시스템도 구축했다.

김동일 시장은 "복지수요와 국·도비사업 증가로 세출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경기침체와 경제상황이 어려워 체납액이 늘어나고 지방세도 감소하는 등 징수여건이 불확실하고 어려워지는 추세"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이월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있고 이를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도로부터 6년 연속 지방세징 종합평가와 체납액 징수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노후우물 바탕으로 올해에는 최우수 기관이란 타이틀을 거머쥌 수 있도록 함께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보령=김정미 기자

내년 학교 교육경비 지원 20억 원 확정

금산군, 관내 초·중·고 28개교 44개사업



금산군은 29일 행복교육협의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심의·의결했다.

20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군청 다용도 대회의실에서 위원장 강훈구 부군수를 비롯한 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지원청과 초·중·고 28개교의 44개사업

내년도 학교 교육사업으로 ▲인문계고 및 특성화고 인재육성 3억 7700만원 ▲농어촌 방과후 학교운영 등 교육지원청 연계 5억 5800만원 ▲초·중·고등학교 원어문 보조

교사 지원 및 예술 동아리 운영 등 29개 사업 5억 6800만원 ▲유치원의 전통예술 프로그램 800만원 ▲행복교육지구 연계사업 76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한 학교시설 개선 사업으로 ▲제원중 소규모 목의 체육관 증축 2억 7200만원 ▲중앙초 노후인조잔디 교체 1억 4100만원을 지원키로 협의했다.

신규사업으로 세계자연문화유산 탐방, 방과후 학생자치 동아리 프로젝트, 체험과 영어학습을 접목시킨 '영어야 놀자' 등 12개의 사업이 반영돼 관내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이날 심의에 앞서 문정우 금산군수는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 지방교육 혁신 정책 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자녀 교육시키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과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for Daejeon Today (대전투데이) with contact information (042)538-3030.

금산군, 관광객 홍보도우미 운영... 인삼약초시장 활력

금산군이 홍보도우미를 활용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홍보메신저 역할을 수행한다. 홍보도우미 배치와 더불어

군은 이달 17일부터 시장활성화 홍보도우미 4명을 선발, 금산수삼센터 입원과 인삼전시관 광장 두 곳에 각 2명을 배치 근무토록 했다.

홍보도우미는 금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금산인삼약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흠잡지 않는 인삼제품 시식, 관광버스 인센티브 접수 등의 일을 맡는다.

홍보도우미는 금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금산인삼약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흠잡지 않는 인삼제품 시식, 관광버스 인센티브 접수 등의 일을 맡는다.

관광버스 인센티브 접수처도 2개소로 늘려 인삼시장을 찾는 관광버스 관광객의 편의성도 높여줬다.

군은 인삼약초시장 관광객 집객력 향상을 위해 관광버스 인센티브 지급서비스 체류 시간을 기존 90분에서 60분으로 단축하는 금산군 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객 유치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 추진하는 홍보도우미 사업 추진 결과 분석을 통해 내년에는 홍보도우미 확대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1월의 역사인물 '우금티 전투의 동학농민군' 선정

공주시, 우금티 추모예술제 개최 및 우금티 방문자센터·상징광장 조성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11월의 역사인물로 '우금티 전투의 동학농민군'을 선정했다. 김석광 문화재과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서양을 반대하고 왜인들을 척결하겠다는 '척양척왜'의 깃발을 걸고 반봉건·반외세 민중운동을 벌였던 우금티 전투의 동학농민군을 11월의 역사인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을 먹다가 일본군에게 몰살당한 농민군이 즐비해 공동묘지가 되었다는 승주골·은골·방축골 등의 가슴 아픈 이야기까지 전해오고 있다.

시는 11월 역사인물 연계프로그램으로 오는 11월 2일 우금티 추모예술제를 개최해 우금티 전적지의 중요성과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숭고함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1894년 6월 말부터 공주대부분지역은 일본군 철수를 요구하는 농민군들이 장항까지 확대하는 등 봉기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에는 '1894년 우금티,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할까?'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시는 나아가 사동학농민전쟁 우금티 기념사업회의와 협의 통해 우금티 방문자센터 및 유적 상징 광장을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손병희가 이끄는 충청도 북동부지역 북적농민군은 전라도에서 올라온 남적 정봉준 부대와 합류, 4만에 이르는 대대적 연합부대를 형성해 충청감영이 자리한 공주를 점령하기 위해 공격을 감행했다.

김영을 배후에서 공격하려던 하고개 전투의 사망자를 대상으로 수장한 '송장배미(송뭇)', 길을 뚫다가 해골이 여러 바지개가 나왔다'는 하고개, 점

공주감영에 입성하면 한양으로 진격하는데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1차 봉기 때 전수성을 점거하고 중앙정부와 화약을 맺은 것처럼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정봉준과 손병희 연합군 약 4만 명은 10월 23일부터 3일 동안 경천(敬川)으로부터 이인

'보령의 발굴유적과 유물' 전시해설 프로그램 진행

보령박물관, 특별전 해설과 함께 관람·역사알아가는 시간제공



보령시는 지난 16일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11일까지 보령박물관에서 진행되는 기획특별전 '보령의 발굴유적과 유물' 특별전시 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날 관람객들이 특별전을 해설과 함께 관람하고, 보령의 역사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시 해설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2회에 걸쳐 운영되고, 별도의 예약 없이 참여할 수 있으나, 단체의 경우 편의를 위해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 해설 프로그램에서는 유적이 발굴 조사되는 모습부터 유물이 박물관에 전시되기까지의 여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획특별전 '보령의 발굴유적과 유물' 전시회는 보령에서 발견된 유적과 출토된 유물들을 선보이는 자리로, 구석기, 청동기, 삼한~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의 역사를 가진 주먹도끼, 돌칼, 동경(동몽거울과 옥구슬) 등 300여 점이 전시된다.

명천동유적의 특징으로는 마한시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성지로 추정되는 장소가 발견됐는데, 규모가 크고 구릉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해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여서 소도에 걸맞은 다양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또한 환구 돌임구를 폐쇄한 움무덤(토광묘土壙墓)에서는 동경과 다량의 옥이 출토되었다. 특히, 움무덤에서 발견된 동경은 보령에서는 처음 발견된 것으로 명천동 유적의 중요성을 알 수 있으며 이번 전시의 대표 유물이다.

이병윤 문화새마을과장은 "우리 주변의 유적이 발굴 조사되는 모습부터, 유물이 박물관에 전시되기까지의 여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특별전과 전시해설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 청소년과 시민들께서는 보령의 역사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성기자

김정섭시장, 금강 현장방문... 수질·수생태 개선 모색

공주시통합물관리비전 수립 박차... 국가통합물관리 선제적대응

김정섭 공주시장이 지난 29일 금강의 수질과 생태계 개선 및 문제점 확인을 위해 현장방문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시장은 이날 곰나루에서부터 수상공원장, 공도교, 공주보소수력발전소, 공주보 하류부 등을 직접 방문하고 금강의 수질과 수생태에 대한 현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K-Water 금강보관리단 민경진 단장 등 직원 5명과 시청 국과장 등 10여 명이 동행했다. 김 시장은 이날 곰나루에서부터 수상공원장, 공도교, 공주보소수력발전소, 공주보 하류부 등을 직접 방문하고 금강의 수질과 수생태에 대한 현황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또한, 곰나루와 수상공원장의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주보의 현황에 대해 청취했다.



공주=정성범기자

또한, 곰나루와 수상공원장의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주보의 현황에 대해 청취했다.

제26호 당찬 사람들 동판 부조 작가 이미선 씨 선정

평범한 주부에서 작가로, 작품 활동 이어와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에서 태어나 1남 2녀의 자녀를 둔 평범한 주부이자 마음을 새기는 동판 부조 작가 이미선 씨(55세)가 당진시로부터 제26호 당찬 사람들로 선정됐다. 그녀가 동판이라는 조금은 생소한 소재에 부조 작품을 그리게 된 계기는 그저 동에 다 그림을 그릴 수는 없을까 하는 호기심에서 출발했다. 그렇게 동판과 인연을 맺은 이 씨는 1986년 결혼해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면서 집의

거실 한 편에 단출한 작업실에서 동판 부조 작품을 새겨 왔다. 특히 동판 부조는 동판에 밑그림을 그린 뒤 송곳으로 두드리며 부조기법으로 표현하고 약품처리까지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처음 밑그림을 그리는 법만 잠깐 배우고 나머지 과정을 스스로 깨쳐가다 보니 얼굴에 큰 화상을 입을 뻔하는 등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그녀다. 이렇게 동판과 함께 인고의 시간을 지나

온지 27년. 동판에 그림을 새기는 힘든 과정 속에 손목 통증이 훈장처럼 남았지만 가르쳐주는 스승도 없고, 특별한 학위도 없이 독학으로 배운 실력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뛰어난 작품으로 지금까지 10번이 넘는 공예 전시회에 참가하면서 새로운 작품을 향한 도전과 열망을 이어가고 있다. 이미선 작가는 "작품을 시작한 지 27년이 되었다지만 지금도 작업을 할 때면 긴장을 하게 된다"며 "작업하는 동안 힘이 들기도 하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나왔을 때는 정말 행복하다"고 밝혔다. 당진=최근수기자



금산군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무자 교육 실시 금산군에는 지난 29일 금산군청 2층 상황실에서 세무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산군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무자를 상대로 세외수입 부과징수 등 업무처리 기본요령과 전산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대전교육청, 학교공간혁신사업 추진학교 워크숍 실시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10월 29일(화) 대전만년중에서 '2019년 학교공간혁신사업 중 미래공간 '숨' 사업으로 선정된 학교의 교장, 행정실장, 교사, 학교공간혁신추진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학교공간혁신사업 추진학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주시, 신바람 정책특독 '사회복지 발전방향' 토론회 7일 개최

사회복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청취해 공주시 사회복지 정책 수립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오는 11월 7일 오후 4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 발전방향을 주제로 12번째 신바람 정책특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해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부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공주시 사회복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대상은 관내 사회복지분야 전문가와

시설 운영자, 시설종사자, 요양보호사,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사회복지공무원 등 80여명이다. 또한,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서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박순우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공주시의 복지정책 방향 및 사회복지서비스 품질향상 방안'이라는 기초발제에 이어 이재완 공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재로 자유토론 시간이 마련된다. 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복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주병학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문제점을 살펴서 대응방안도 마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좋은 복지정책이 많이 제시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대전시티즌, 11월 2일 흥경기는 대전어린이회관의 날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11월의 어린이날이 개최된다. 대전시티즌은 11월 2일 오후 3시에 열리는 FC안양과의 흥경기를 '대전어린이회관의 날'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대전월드컵경기장 2층에 위치한 대전어린이회관(관장 이충선)은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형 학습·놀이 중심의 복합 문화 시설로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이했다. 대전어린이회관의 날을 맞아, 미취학 아동(7세 이하)은 ES석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또한 선착순 500명의 어린이 입장객에게 색연필 세트가 증정된다. 김정환기자



나주시, 아산 온천천 복개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견학 나주시청 공무원 등 관계자 20여명은 지난 29일, 나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획과 관련해 아산시청을 방문해 온천천 복개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견학했다.

대덕구, 에너지전환 정책 이해를 위한 특강 개최

에너지전환 정책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30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박정현 구청장과 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전환 정책을 이해하고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경희사이버대학 기후변화 특임교수 조천호 박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한재각 박사,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신근정 운영위원장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기후위기 과학적 근거'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조천호 박사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기후변화의 주범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에 주목하며,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와 지역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한재각 박사는 '국가차원의

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앙중심의 에너지계획에서 지방정부중심의 전환이 필요하며, 에너지분권에 의한 주민의 참여와 지역에너지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테마파크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신근정 위원장은 테마파크 선진사례들의 소개를 통하여 주민과의 감응 해소와 주민참여 중심의 정책개발과 실천 사례와 우리의 정책방향' 등을 제시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과 정부에너지 정책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있어 오늘의 특강이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태성기자

충남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최우수기관 선정

2018년도 감축률 46.1%...환경부 기관 표창수상



충남도가 환경부 주관 '2018년도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사업 수행 결과, 온실가스 감축실적 최우수기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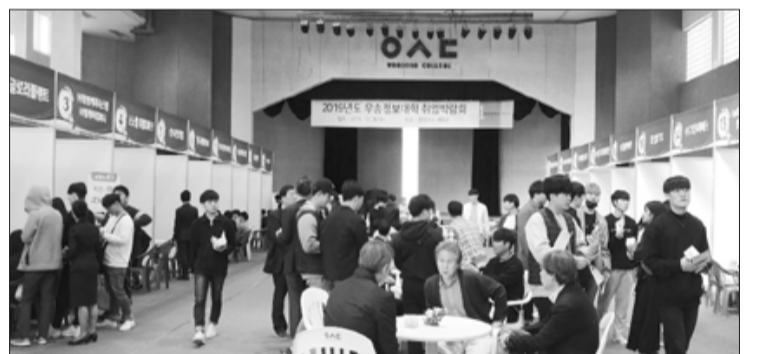
선정됐다. 도는 30일 서울 K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성과 보고대회'에서 환경부 기관 표창과 상금 2000만 원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평가해 포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우수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우수기관 및 유망자 시상, 감축 우수사례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도는 환경부 기관 표창과 함께 개인

표창(조사과 정주식 주무관을 수상했으며, 지자체 대표로 감축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46.1%의 감축률을 기록해 전국 광역도 평균 감축률 18.8%보다 월등한 온실가스 감축률을 달성했다. 황상연 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결과는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함께 여름·겨울철 불편을 감수하고, 에너지 절약에 협조해 준 도청 직원들 덕분"이라며 "시상금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 개선, 행사 개선, 담당자 역량 강화 등의 용도로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더욱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한남대-국제희년재단 '이 볼로냐 사회적경제' 심포지엄 개최



한남대(총장 이덕훈)는 국제희년재단준비위원회위원장 임은빈과 29일 오후 4시 교내 무어아트홀에서 '한국 사회의 변화와 지역 통합 돌봄의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에서 이탈리아 볼로냐의 대표적 인 사회적협동조합 '카디아(CADIA)'의 프랑카 구글리에메티 회장과 라라 프리에리 국제프로젝트 총책임자가 각각 볼로냐의 사회적협동조합 활동과 사회적기업에 대해 특강을 했다. 특히, 사회적경제를 위해 노력 중인 한남대와의 국제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볼로냐 보건국의 안젤로 피오리티 정신보건국장이 '이태리 정신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지역협력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안젤로 국장은 특강을 통해 지역통합 돌봄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이고, 정신 장애인들을 지역사회 안에서 돌보아야 하는 이유, 혁신 방안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심포지엄을 마친 뒤 참석자들은 한남대 통합식당 맨스커스티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헨리 폰 보스(Henry von Bose) 독일 뷔텐베르크 주의원과 '통일에 따른 사회적 담담치유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우송정보대학 '2019년 취업박람회' 개최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은 30일 오후 1시 동캠퍼스 체육관에서 2019년도 우송정보대학 취업박람회를 열었다. 이번 박람회는 우송정보대학과 함께하는 기업체 및 취업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우송정보대학 학생 및 취업을 희망하는 관내 청년들에게 일자리 정보제공과 소문의 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한노총 위원장 방문 노사상생 협력 협조 요청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심승일 중기중앙회 부회장, 김문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 등)는 30일 오전 11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을 방문,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한노총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조폐공사 감사실, 성세재활원과 사회공헌 협약 체결 한국조폐공사 감사실은 30일 대전 사회복지법인 성세재활원과 장애인 지원과 지역 나눔문화확산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다.

아산시, 은행나무길 축제에 피아노와 '1인 1악기' 선율

오는 11월 2일 오후 3시에 '거리 피아노 콘서트' 진행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아산시 1인 1악기 팀과 함께 은행나무길 축제기간인 오는 11월 2일(토) 오후 3시에 거리 피아노 콘서트

를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아산시 1인 1악기 갖기 운동'으로 그 동안 악기를 연습해온 아산시민오케스트라(바이올린, 안단테(바이올린), 배방플루트앙상블(플루트), 아산시민관악단(트럼펫) 등 동아리 4팀이 참여해 전문 피아니스트인 이범재 피아니스트와 함께 고향의 봄, '오버 더 레인보우'를 연주할 예정이다. 그동안 악기를 열심히 연습해온 시민들이 지역축제에 참여해 '아산시 1인 1악기 갖기 운동'의 생활문화예술을 보여 줄 수 있어 의미가 크다. 공연참여 동아리팀 출연자는 "아산시 1인 1악기 갖기 운동을 통해 지역 대표축제인 은

행나무길 축제에 참여하게 돼 매우 행복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악기를 같이 배우고 공연하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 은행나무길 축제는 10월 25일(금)부터 11월 3일(일)까지 2주간 매주 금, 토, 일(여차)을 은행나무길 일원에서 진행되며, 거리피아노 콘서트는 이범재 피아니스트 등 10명의 전문피아니스트가 상어가죽 중 활아버시 상어 성우인 신명근 연주자의 그림 포미스와 지금이 순간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붉은 노을' 등을 공연하며, 뮤지컬 배우 김 리와 'MEMORY(뮤지컬 캐치)', 'Defying Gravity(뮤지컬 위키드)' 등을 공연할 예정이다. 아산=리량주기자



천안고용노동지청, 찾아가는 워라밸 무비데이 개최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권호안)은 지난 29일, CGV센터포에서 일·생활균형 충남지역 추진단과 함께 노동시간단축 및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일생활균형캠페인 참여기업인직원·가족 등 200명을 초청, 제2차 찾아가는 워라밸 무비데이를 개최했다.



선문대, 아산 '총무회' 초청 포럼 열려 2019 총무회 초청 포럼행사가 선문대학교(총장 황선조) 국제회의실에서 30일, 열렸다. 총무회(회장 박종덕)는 아산시의 대표적인 기관, 단체장 모임으로 이날 포럼은 지역사회와 대학의 공동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청양군자원봉사센터, 우수봉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사)청양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신기섭)는 지난 29일 전남 함평군을 찾아가 지자체 사례를 수집하는 등 우수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대전대 학생상담센터, 자살 예방 캠페인 개최 대전대(총장 이종서) 학생상담센터가 지난 29일 대학 해화문화관 3층에서 '자살 예방 캠페인'을 개최했다. 대전 생명전화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생명존중문화 형성을 위한 목적으로, 학생상담센터에서 진행했다.



당진시 노인복지관, 시니어 봉사단 나들이 실시 당진시 노인복지관(관장 이병하)은 지난 30일 시니어 봉사단 40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예산·예당호 출렁다리 관광 및 산책 등 나들이를 실시했다.



농협대전본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100만인 서명운동 농협대전지역본부는 30일 중앙로 지하상가 일원에서 대전 범농협 임직원과 함께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100만인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한밭대, 충남대 등 6개대학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뭉쳤다

지역의 대학이 지역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지역사회를 발전을 견인할 인재양성을 도모하는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이 본격 막을 올렸다.

'과학기술·행정 융복합 지역혁신인재 양성사업단'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충남대학교 정심화 국제문화회관 백마홀, 대덕홀에서 '과학기술·행정 융복합 지역혁신인재 양성사업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의 선도대학 역할을 맡고 있는 충남대를 비롯해 건양대, 목원대, 배재대, 한남대, 한밭대 등 6개 사업 참여대학의 총장과 관계자, 지역 국회의원, 대전·세종시, 충남도 기관장, 지역 공공기관 및 기업체 CEO, 학생 등이 참석했다.

1, 2부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는 1부 사업단 소개와 경과보고, 사업단 출범 선포, 테이프 커팅 식 등이 진행됐으며, 2부에는 사업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기업체 및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특강을 진행했다.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은 지역 대학의 지역발전 거점 역할 수행 및 지역사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대학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상호 연계해 지역 인재 공동



양성을 목적으로 지난 7월 교육부가 충남대를 포함해 12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의 실현을 위해 출범한 '과학기술·행정 융복합 지역혁신인재 양성사업단'은 선도대학인 충남대를 비롯해 건양대, 목원대, 배재대, 한남대, 한밭대 등 지역의 6개 대학과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등 지자체와 지역 7개 공공기관 및 19개 기업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장 5년간 진행되는 '과학기술·행정 융복합 지역혁신인재 양성사업단'은 지역인재 공동 양성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각 참여대학에 '과학기술·행정 융복합 연계 전공'과 '융·복합형 전문정책인재 트랙', '창의적 과학기술인재 트랙' 등을 개설하고 각 참여대학

의 특성을 반영해 운영한다.

연계전공은 기초 공통, 공동 핵심, 공공기관·지역기업 선택, 맞춤형 현장실습 등 기초부터 현장실습까지 이어지는 4개 교과목 영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6개 대학에 2020년 1월 연계전공 개설을 완료하고, 2020년 1학기(3월)부터 실제 수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연계전공에는 참여대학 교수와 사업단 연구원, 공공기관 및 기업체 담당자가 함께 참여해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시행할 예정이다.

'과학기술·행정 융복합 지역혁신인재 양성사업단'을 통해 지역의 6개 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체가 참여해 특화된 연구환경, 첨단산업단지, 행정도시로서의 특성을 갖춘 대전-세종-충남지역의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국회 본회의에서 혁신도시법 수정안의 통과가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보다 한 발 앞서 지역 내 대학과 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긴밀한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해 맞춤형 인재 양성이 이뤄져 수요자와 공급자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행정 융복합 지역혁신인재 양성사업단'에 지자체와 지역 내 공공기관, 기업체가 참여해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양성'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과정에서 대전·충남·세종 소재 대학에 2020년 1월 연계전공 개설을 완료하고, 2020년 1학기(3월)부터 실제 수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연계전공에는 참여대학 교수와 사업단 연구원, 공공기관 및 기업체 담당자가 함께 참여해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시행할 예정이다.

'과학기술·행정 융복합 지역혁신인재 양성사업단'을 통해 지역의 6개 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체가 참여해 특화된 연구환경, 첨단산업단지, 행정도시로서의 특성을 갖춘 대전-세종-충남지역의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이정복기자

공주대 이일규 교수, UN 산하 국제전파통신학회 부의장 연임 진출



공주대학교 이일규 교수(사진)는 지난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2019년 국제전파통신연합(ITU) 전파통신학회'에 한국대표단으로 참가, ITU 전파통신 부문 의장단에 부의장으로 연임 진출했다.

이로써 오는 2023년 열릴 예정인 차기 전파통신학회 때까지 주파수 스펙트럼 공학 및 관리 등 국제 표준을 결정하는 세계 권위의 국제회의에서 전파관리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부담(SG1)의 실무부담을 맡게 됐다.

이일규 교수는 2010년부터 한국 ITU-R 연구위원회 연구부담 및 대표단 활동 등 지난 10년간 전파관리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2015년부터 국제 부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전파통신 분야 국제 글로벌 표준정책 결정에 기여해 왔다.

공주=정성범기자

광복회장, 아산시방문 '단체 신채호선생 모과나무' 식재



광복회(회장 김원웅)는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및 광복 74주년을 기념해 지난 29일, 아산시(시장 오세현)를 방문해 환담하고 '단체 신채호 선생 모과나무'를 청소년교육문화센터 현수동 산에 식재했다.

단체 신채호 선생 모과나무는 조선의열단 창립 100주년을 맞아, 단체 신채호 선생이 9살 때 자치통감을 배우고 책거리로 집필에 심은 모과나무 씨앗을 싹틔운 묘목으로 이날 환담 및 현수식에는 오세현 아산시장, 김원웅 광복회장, 안상우 광복회 충남 지부장, 장명진 동학농민혁명 아산시 기념사업회 이사장, 정해근 광복회 아산지회장, 윤필희 독립기념관 상임이사가 참석해 식재했다.

아산=리량주기자

알림

▲ 대전학생인권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31일 오전 10시 대전시 NGO지원센터 모아서 50주최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 대전광역시인권센터

▲ 벨엘의집 희망치료센터 20주년 기념 세미나 =공적의료시스템의 대안 모색! "공공의료와 지방분권" 주제로 11월 1일 저녁 7시 30분 빈들공동체 4층(동구동서대로 460)

산업인력공단 대전본부, 외국인고용사업장과 상생발전

지역농산물 판로지원 전시및 판매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는 30일 본부 외부공간을 활용하여 지역농산물 판로지원 및 지역일학 습병행에 참여기업 우수제품 홍보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지역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영농법인과 협업해 고구마, 토마토 등 약 15가지의 품목을 조달받아 진행했으며 전시뿐만 아니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도 병행했다.

이날 판로지원 전시회를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는 지역 내 여러 기관들과 협업해 외

국인고용사업장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반응 역시 뜨거웠다. 판로지원 전시회를 찾은 한 주민은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손쉽게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이병재 본부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역 내 기관과 협력해 외국인고용사업장과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당진화력본부,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시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본부장 박은옥)는 지난 29일 당진화력 본부 내에서 24개 유관기관과 함께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했다. 당진화력은 강풍, 화재, 유해화학물질(암모니아) 누출 시를 가정해 강풍대피, 화재진압, 유해화학물질 긴급 차단 및 긴급복구에 중점을 둔 훈련을 실시했다.



서산시 팔봉면 행정복지센터, 어르신들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실시

서산시 팔봉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유목근)는 마을회관을 찾아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화제다.

29일 덕송리에서 시작한 교통안전 교육은 소형 전동차 및 자동차에 아광반사지와 실버마크 부착, 교통안전 동영상을 시청, 주민들의 호응 높아 관내 22개 마을회관 모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통안전 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 들어 사각지대로 인해 사고위험이 높은 9곳을 대상으로 반사경 신설을 추진중이며, 지난달 과속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로당 주변에 노인보호구역 연장을 추진키로 했다.

서산=김정환기자



공주 금학상기원름번영회, 장학금 전달

공주교대 장학금 올해로 11번째

공주 금학상기원름번영회가 올해 또다시 공주교육대학교에 장학금을 쾌척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영성규 금학상기원름번영회장과 류승필 전 회장 등은 지난 29일 오후 안병근 공주교대 총장을 만나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써 달라며 장

학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금학상기원름번영회와 공주교육대학 간 상생발전의 손에 맞닿은 지 11년, 금학번영회는 매년 200만 원씩 대학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양성을 위한 일에 힘을 보태고 있다.

공주=정성범기자

기고

경제적이고 안전한 식물 생산 백신



한범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생물소재공학과

당시 유럽 전체 인구의 4분의1 정도였던 수천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유럽 전역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흑사병, 접촉으로 전염되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치사율이 높

아 재앙이라 불리는 에볼라 바이러스 등 인류는 예전부터 지금까지도 수많은 바이러스와 공존하며 바이러스로부터 고통받아왔다. 특히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으며 과학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연구 끝에 백신을 개발하게 되었다. 백신은 우리 몸 속 면역체계의 기억력을 이용해 한번 경험했던 바이러스를 기억하고 다음에 다시 들어왔을 때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항체를 만들어 내 바이러스를 미리 예방하는 것으로 이렇게 탄생하게 된 백신의 개발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그동안 공포에 떨게 했었던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백신은 주로 동물

세포에서 생산해 낸 것으로 저온보관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과 접종 후 합병증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기존의 백신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식물체를 이용한 백신연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동물실험을 통해 특이항원에 대한 특이항체가 유도됨이 증명되고 공격적 접종 실험에서 생존력 향상을 가져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식물 생산 백신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식물의 특성을 이용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다수에 투여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이며 병원균 감염의 우려와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연구를 통해 감자, 콩, 옥수수 등 다양한 식물체를 실험하고 있으며 효과가 더욱 뛰어난 식물 생산 백신을 만들기 위해 항원 단백질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기술을 개발해 항원력을 더욱 높이려고 하는 등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아직은 식물 백신으로 사용하려는 식물체 내 재조합 단백질 장내 분해 문제를 극복하려는 연구 투여 방법을 개선하는 것과 발현 시스템을 최적화시키려는 연구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남아있지만 이와 같이 관련 연구를 지속해 나가면 경제적이고 안전한 식물 생산 백신을 현실화하고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다.

건강 칼럼

자궁경부암, “그것이 알고싶다”



하중규

을지대학교병원 산부인과 하중규 교수

좋아져 2차 성징 발현 연령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인터넷 및 스마트폰 등의 보급으로 성 경험 연령이 낮아지는 것에 비해 올바른 성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자궁경부암이 발생하는 부위인 변형대(transformation zone)가 청소년 기에는 자궁경부의 외측으로 위치하고 있어 성인에 비해 자궁경부암 위험도가 매우 높다.

특징을 가졌나? 인유두종바이러스는 150여 가지가 넘는 종류가 있으며,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뉜다. 저위험군은 성기 사마귀 등을 유발하며, 6번과 11번이 대표적이다. 고위험군은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16번과 18번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일시적이고 5년 이내에 사멸하나, 지속적으로 감염될 경우 자궁경부암 위험도가 증가한다.

시적이거나 경미한 반응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독감 백신을 맞았을 때 생기는 부작용과 동일하다. 따라서 만 9세부터 29세까지,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 예방백신을 맞을 것을 권한다.

Q8. 30세 이상 여성도 예방백신 맞으면 효과를 볼 수 있나? 물론 자궁경부암 백신은 성 경험이 생기기 전, 즉 인유두종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전에 접종할수록 예방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30세 이상, 중년 여성에서도 새로이 감염되기도 하므로 늦게 맞았다고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전문의 상담 후 45세까지는 접종을 권하고 있다.

Q9. 오래 전에 2가백신을 맞았는데, 9가백신을 또 맞아야 하는가? 2가백신은 16·18번, 4가백신은 2가에 6·11번이 추가, 9가백신은 4가에 31·33·45·52·58번이 추가된 것으로 예방범위가 넓어졌다. 고위험군에서 자궁경부암의 유발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백신접종위원회에서는 이전에 2가 및 4가백신을 접종한 사람에게 9가백신을 추가 접종하도록 권하고 있다.

Q10. 백신 외에 전문가가 추천하는 자궁경부암 예방법은?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현재 만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에서 자궁경부암 무료 검진이 이뤄지고 있다. 2년에 한 번씩 자궁경부세포검사를 시행하는데,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또 첫 성 경험 나이를 늦추고, 성 상대자수를 최소화하는 등 안전한 성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Q3. 발병 전 특별한 전조증상이 있나? 초기에는 무증상에 가깝다. 간혹 '자궁통'을 느낀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성의 Y존 윗부분에서 통증이 발생했다면 이는 일종의 생리통 정도로 간주할 수 있다. 자궁경부암의 가장 뚜렷한 증상은 성교 이후 경미한 질 출혈이다. 그러나 초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보다는, 이미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2차 검역이 동반되면 악취가 나고, 배뇨곤란이나 혈뇨, 직장 출혈, 하지부종, 체중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Q4. 자궁경부암은 원인이 밝혀진 암이라는데? 아마 암 중에는 유일할 것이다. 자궁경부암은 성 접촉에 의한 인유두종 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감염이 주된 원인이다. 자궁경부암 환자의 99.7% 이상에서 고위험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발견된 것으로 보고됐다. 인유두종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처럼 성 생활을 하는 여성의 약 80%가 평생에 한 번 이상 감염될 정도로 매우 흔하게 발생하며, 감염 후 암으로 진행되기까지 수년 혹은 수십 년이 걸린다.

Q5. 인유두종바이러스는 어떤

자궁경부암은 성 경험이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안심할 수 없는 암이다. 특히 예전만해도 폐경을 앞뒀거나 폐경 이후인 40~50대 여성들에서 많이 발견되었으나, 최근에는 발생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대 암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20대 자궁경부암 환자는 2014년 2,041명에서 2018년 3,370명으로 66.1% 증가, 조사 대상인 5대 암 중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자궁경부암과 관련된 궁금증들을 해소해 본다.

Q1. 자궁경부암이란 어느 부위의 암을 뜻하냐? 자궁은 수정된 난자가 착상하고 성장하는 여성 생식기관으로, 몸통(체부)과 경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질과 연결되어 있는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을 자궁경부암이라고 한다.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에서 발생하는 암 중 두 번째로 흔한 암이다.

Q2. 자궁경부암 발생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냐? 과거에 비해 영양상태가 많이

대덕구, 다중이용시설 화재대응훈련 실시

대전산업용재유통단지 화재발생 가정·재난대응 기관협력 시스템 등 점검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인 지난 29일 대전산업용재유통단지에서 다중이용시설 화재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대덕구와 대화119 안전센터, 대전 산업용재유통단지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날 훈련 참가자들은 다중이용 시설인 대전산업용재유통단지의 화재상황을 가정하고 자위소방대 초기 진화 및 신고활동, 대화119안전센터의 구조 및 화재 진압, 대덕

구의 주변 교통질서 유지, 건물 안전진단 등 유관 기관의 유기적인 재난대응 협조체계를 점검하며 실제상황처럼 훈련에 임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실제상황 훈련을 통해 재난상황 발생 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는 오는 1일까지 5일간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며, 1일에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대형화재 현장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설

학교폭력, 관용의 한계를 넘었다

학교폭력이 성인 못지않은 과격성과 잔인성을 동반하며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지만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후 대책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피해를 양산하고 있던 지적이다. 최근 서울, 대전, 익산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청소년 학교폭력 사태는 관용의 한계를 넘었다는 판단이 내려질 만큼의 강력한 폭력성과 잔혹함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 대전에선 전화를 받지 않는데도 또래 중학생 1명을 1년 가까이 폭행해온 중학생 4명이 경찰 신고에 불만을 품고 보복 폭행까지 했는가 하면 또다른 학교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은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다는 한 동급생의 계속된 폭행에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시도를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성북구 한 중학교에선 우유가 몇 방울 튀게 했다는 이유로 4명의 중학생이 한 학생의 손과 발을 묶어 담뱃불로 짓고 소화기를 몸에 뿌리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피해학생은 고막이 파열되고 실명위기의 상황에 놓인 상태다. 익산에서도 여고생 2명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데 여중생 한명을 무릎 꿇리고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이 퍼지면서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처럼 10대 청소년들에 의한 폭력이 학교 내외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지만 계속된 문제제기와 대책마련의 필요성에 불구하고 행위는 더욱 잔혹해지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2차, 3차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청소년 폭력에 대해 한 순간의 실수 정도로 치부하며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무서운 청소년'을 양산하는 한 요인으로 지적될 만큼 청소년 폭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당시자는 물론 가정과 학교, 사회까지를 망라해 결국 보통의 삶까지 파괴하는 부작용을 낳는 청소년학교폭력을 더 이상 관용과 선도라는 이름으로 방치해선 안 된다. 폭행의 공포로 자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면을 목격한 부모, 두들겨 맞아 실명위기에 처한 자식을 보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 잊을 만 하면 반복되는 10대 폭력이 아니라 이전 학교폭력이 일상이 될 정도로 학교폭력대책은 유명무실한 상황이 됐다. 잔혹해 지는 10대 폭력 범죄 방지는 결국 미래 우리 사회 흥포화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심상치 않은 영남 일대 잦은 지진 발생

며칠 전 발생한 경남 창령의 규모 3.4 지진으로 지진에 대한 공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 지진은 올해 발생한 내륙 지진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 지금까지 경남 내륙지역에서는 규모 2 이하의 지진이 주로 발생했었는데 이번엔 다소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최근 몇 년 새 지진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음이 재확인된 것이다. 2016년 경주에서 일어난 규모 5.8의 대지진 이후 거의 1년 동안 무려 600여회의 여진이 발생하여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상황이다. 게다가 인근 포항에서도 2017년 12월 이후 강진이 계속 발생하여 주민들의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와 충격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포항의 지진은 지열발전이 원인으로 확인돼 인제로 판명됐다. 지열발전은 지하 구멍에 수천 톤의 물을 주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강한 압력이 단층대를 활성화 시켜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이 지역에 형성된 단층대가 지진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지열발전이 아닌 자연 지진의 발생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연세대 연구팀은 최근의 지진의 빈도와 패턴 분석을 통해 앞으로 동해 일대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14년에

서 44년 이내에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해 우려가 크다. 우리나라의 주지진이 영남지방 단층대에 위치한 경주, 포항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영덕, 울산, 밀양, 포항에서 규모 2 정도의 지진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간과할 일이 아니다. 이 일대에서 최근 5년간 4백 건이 넘는 지진이 발생해 건물 내진 설계가 필수적인 상황이지만 현재 경남북 일대의 내진 확보 비율은 9.4% 이하이다. 게다가 이 지역에 원전 시설이 밀집해 있어 더욱 불안감이 크다. 원전에 내진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강진이 발생한다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이 지역 단층대를 중심으로 지진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동일본대지진 이후 빈도수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진 대비가 매우 긴급한 상황에 도달했음을 암시하는 지표다. 지진에 다소 인이했던 탓에 건물의 내진 설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더욱 불안감을 주는 요인이다. 행안부가 오늘 국민참여 지진대피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물의 내진 설계 강화, 지진 대피 요령 홍보 및 훈련 등 지진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보령시, 제39회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 거행

보령시는 30일 오전 남포경찰묘역 내 위령탑에서 제39회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를 거행했다. 한국자유총연맹 보령시지회(지회장 양수연) 주관으로 열린 위령제에는 김동일 시장과 양수연 지회장, 추모회원, 유가족,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했다. 행사는 식전에 보령 한무연 팀의 흥취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육군 제8361부대의 조총래, 헌화 및 분향, 기도(기독교), 독경(불교) 등 종교 의식에 이어 추념사, 각급 기관장들의 추도사, 조시낭독 순으로 진행했다. 양수연 지회장은 추념사에서 "호국영령들이 흘린 고귀한 피 위에 우리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풍요와 번영의 터전을 세웠다"며, "임들의 혼을 가

슴에 담아 그 강건함으로 우리 모두는 자유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일 시장은 추도사에서 "오늘 합동위령제가 자유수호와 호국정신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지난날의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침으로 전하여 이 땅에 길이 길이 자유와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위해 공산주의에 항거하다 희생된 민간인의 호국영령 추모 및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한국자유총연맹 전국 시·군·지부 주관으로 매년 10월 30일 전후에 개최해 오고 있다. 보령=김정미 기자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전투데이. 발행·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안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료 월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인쇄처 : 동양인쇄.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20.01"
겨울방학 캠프모집

BESTACADEMY

www.bestacademy.co.kr

검색창에서 관베스트아카데미 검색

Kakaotalk ID.bestacademy

Instagram ID. guambestacademy

Korea. 010.4042.8899

Guam. 001.671.922.4222

